

송주미 선생님과

우리들의 서평모음

2024년 신흥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랑



2024. 10월부터 11월까지

들어가는 말

학생들이 작성한 서평을 읽으며, 같은 책을 읽고 이렇게나 다른 글이 나온다는 것에 다시 한 번 놀랐습니다. 우리는 참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아이들의 글을 통해 다시 느낍니다.

책을 읽고, 인상 깊었던 부분을 선택하고, 하고 싶은 말을 꺼내어 조심조심 다듬어가며 진지하게 작성하는 중학교 3학년 남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자라 만들어 갈 건강한 사회를 꿈꿔 봅니다.

정성스럽게 꺼낸 내 생각만큼, 다른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서로의 생각을 이어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연결되어 있고, 같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되겠지요.

그렇게 책에서부터 시작하여 삶과, 세상과, 사람에게 깊은 관심과 애정, 연민이 가득한 한 사람으로 바로 서길 응원합니다.

졸업하는 2024년 신흥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앞날에 축복 가득한 경험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그 어떤 경험들이 찾아 와도 자기 삶의 축복으로 쓸 수 있는 단단하고 유연한 사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3년 내내 국어교사였던 송주미 선생님이

목차

| | | |
|---------------------|------|------|
| 1. 걸리버 여행기를 읽고 쓴 서평 | ———— | 5쪽 |
| 2. 리버보이를 읽고 쓴 서평 | ———— | 22쪽 |
| 3. 불편한 편의점을 읽고 쓴 서평 | ———— | 42쪽 |
| 4. 아몬드를 읽고 쓴 서평 | ———— | 66쪽 |
| 5. 훌훌을 읽고 쓴 서평 | ———— | 104쪽 |

「동물농장」 조지 오웰이 극찬한
최고의 풍자문학 완역본



한글판 권역 27

걸리버 여행기

tvN **요즘 책방**
책읽어드립니다 방송도서
매주(월) 밤 10시 20분
tvN방송

「동물농장」 조지 오웰이 극찬한 최고의 풍자문학 완역본 **현대 지성**

지금은 공정한 사회인가

-조너선 스위프트 『걸리버 여행기』, 현대지성 2019.을 읽고 쓴 서평

민경빈 / 신흥중 3학년 1반

초등학교 때 읽었던 ‘걸리버여행기’는 판타지였고 주인공 걸리버가 소인국과 대인국을 여행하며 모험과 상상력을 펼치는 동화였다. 이번에 읽은 ‘걸리버여행기’ 완역본은 이런 판타지 모험 이야기 속에 인간의 숨겨진 이기심과 우리가 사는 사회를 비판하고 풍자한 소설이었다.

아슬아슬한 줄타기

이 곡예는 고관직을 노리며 또 궁중에서 높은 총애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만 하는 놀이였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이 기술을 연마하는데, 모두가 귀족 출신이거나 인문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었다. 사망이나 불명예로 인하여 고관 자리가 공석이 되면 대여섯 명의 후보들이 밧줄 곡예를 시연하고 황제와 궁정을 즐겁게 하겠다고 황제 폐하에게 청원한다. 밧줄 위에서 떨어지지 않고 가장 높이 점프한 사람이 그 고관 자리를 차지한다.

이 오락 행사에는 종종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건 건수는 기록부에 등재되어 있었다. 나는 두세 명의 후보가 사지를 부러트리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그러나 장관들 자신이 몸소 기량을 선보이라는 명령을 받을 때에는 위험도가 훨씬 높아졌다.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동료 고관들의 기록을 뛰어넘어야 하기에 다들 과감한 모험을 벌였고 그리하여 낙상을 입지 않은 자는 거의 없었다.

초등학교때 읽었던 이 부분은 줄타기로 재미있는 곡예 놀이였는데 완역본을 읽다 보니 그 곡예는 인간이 사회에서 더 나은 자리나 부자가 되기 위해 권력자에게 잘 보이려고 줄을 서는 것을 풍자하고 있었다. 정치분야나 회사 등의 집단에서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선택되기 위해 친구나 동료의 성과를 가로채기도 하고 짓밟기라도 해서 올라가서 성공한다. 또는 목숨을 바쳐 일했지만 다른 줄서는 경쟁자에게 뒤처져서 모든 것을 잃기도 하는 모습을 반영하고 있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줄타기

그럼 현재 우리 사회에서 줄타기는 어떤 곳에서 일어나고 있을까?

요즘 뉴스나 인터넷에서 축구 국가대표 감독과 선수 선발에 대해 말이 많다. 전문가들은 감독을 뽑는데 공정하지 않고 자격증이 없는데도 감독으로 뽑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감독은 국가대표선수를 선발하는데 자신이 함께 했던 선수들을 뽑고, 실력보다 축구경기에서 부진

한 성적을 내고 나이가 많은 선수를 뽑는 등 같은 학교출신, 인맥축구 선수들을 선발했다며 감독을 다시 뽑아야 한다고 주장해서 청문회까지 열렸다. 실제 중요한 월드컵 예선전에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약한 팀을 상대로 무승부경기를 해서 실망시켰다.

어떤 집단에서든지 일을 하려면 그 팀이 한팀이 되어야 한다. 축구팀이 연습하고 경기를 할 때에 감독의 말을 잘 따르는 선수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수를 선발하는데는 체력과 축구선수로서의 기술 등 누구나 인정할 만한 실력있는 선수를 뽑아야 한다. 감독과 알고지내서 친하게 지낸 선수, 학교나 출신 지역이 같아서 선수를 뽑는다면 공정하게 선발되지 않고 실제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친분 등 인맥으로 뽑힌다면 나중에도 선수들은 자신의 실력을 쌓는데 노력하지 않고 감독님에게 아부하고 친분을 쌓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팀장의 말을 잘 듣고 따르는 사람들과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여러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일을 해야 성공할 것이다.

권력자가 같은 학교, 지역,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뽑아주고, 잘 보이려고 실력보다는 아부해서 선택된다면 오래 가지 못하고 그 사회는 발전될 수가 없다.

조선시대 배경 <대장금>속에 즐타기

<대장금>을 우연히 재방송으로 보다가 재미있어서 전체를 다 보았다. <걸리버여행기>를 읽으면서 대장금의 최상궁이 생각났다.

스스로 노력해서 성공하는 장금이와 반대로 최상궁은 최고상궁이 되기 위해 고위관리에게 잘 보이려고 돈과 땅문서를 바친다. 고위관리가 시키는 부당한 일을 하고, 다른사람에게 누명을 쓰게도 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면서 고위관리에게 잘보이고 궁에 여러 가지 물건과 음식 재료를 납품하게 된다. 그래서 최고상궁이 되어 많은 재산과 권력을 갖게 된다.

최고상궁이 되자 다른 궁녀들과 상궁들은 최고상궁에게 잘보이려고 부당한 일을 해주고 보물, 비단을 바친다.

조선시대에도 법이 있고 사람들이 관리가 되려면 과거시험 제도가 있는데 고위관리나 힘있는 사람들에게 청탁을 하고 뇌물을 주는 것은 현재 뉴스에 나오는 정치인들, 기업인들의 비리와 같다.

1762년 <걸리버여행기 소설>에서 조너선 스위프트가 영국사회를 비판하고 풍자하기 위해 소설을 썼을 텐데 우리나라의 과거, 현재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은 권력과 재산을 갖고 싶어 하는 인간 본성의 이기심과 탐욕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와 나의 주변 사람들은 공정하게 살고 있는가?

사람들은 성공하고 더 높은 지위나 권력,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서는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 성취하기도 하지만 권력자나 힘이 있는 사람들 곁에서 잘 보이며 그들의 일을 같이해주거나 도우며 함께 성공하기도 한다.

권력자에게 잘 보이고 그 사람들 편에 서서 일하면 성공할 기회가 많아져서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없어지면 그것은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나는 아직 중3이기 때문에 내가 겪은 일을 찾아보려고 하니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집을 생각해보았다. 내 동생은 엄마보다 아빠 말을 더 잘 듣는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 아빠가 가장이고 아빠는 무조건 다 들어주며 용돈도 많이 주기 때문이다. 이런 것도 권력자에게 줄을 서는 것과 같다. 나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이 좋고 자유로운 것이 좋다. 엄마가 반대하는 것에는 절약과 학생 수준을 생각해서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빠가 용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해서 말을 잘 듣거나 아빠에게 잘 보이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스스로 한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손해 보게 하고 싶지 않다. 나를 이끌어 주는 사람과 협력하며 함께 발전하는 것이지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다.

걸리버여행기는 1700년대에 영국과 주변의 사회를 풍자해서 쓴 소설이지만 300년이 지난 현재 사회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내용이라고 해도 믿을 것이다. 인간의 본성과 이기심 성공하고 싶은 마음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을 위해 정치한다는 정치가를 풍자하고 인간 내면의 본성과 사회 속에서 인간의 이기심을 1~4부에 거쳐 판타지 모험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415페이지로 긴 내용이었으며 어떤 부분은 읽고서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다.

성공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 권력자에게 줄타기하는 인간 본성과 이기심 등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고 내가 살아가는 사회는 공정한가? 왜 이런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생겼다. 그래서 뉴스를 볼 때 객관적이고 사실을 보는 것을 길러야겠다. 적나라한 인간 본성과 사회비판이 인상 깊었고 내가 지금 사는 학교와 어른이 되어 사회에 나아가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들이 꿈꾸는 세상

-조너선 스위프트 『걸리버 여행기』, 현대지성 2019.을 읽고 쓴 서평

정동훈 / 신흥중 3학년 2반

이 책은 걸리버가 여행을 가다가 계속해서 표류당하는 내용이다.

우리들이 꿈꾸는 세상

걸리버 여행기의 핵심 내용은 걸리버가 여행을 떠나다가 폭풍을 만나서 소인국에 표류하게 된다. 키가 약 15cm밖에 되지 않는 소인국 사람들은 거대한 걸리버를 결박한다. 하지만 황제가 걸리버를 풀어준다. 그리고 걸리버가 릴리퍼트랑 적대 관계인 블레푸스쿠와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다. 시간이 지나고 릴리퍼트에 궁전에 불이 났다. 그 불을 꺼야 하기에 걸리버는 소변으로 불을 끄고 시간이 지나자 걸리버는 궁전에서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해야 했다. 하지만 이유가 있다. 걸리버가 밥을 많이 먹는다는 이유로 재무장관이 걸리버를 싫어해서 걸리버를 굶겨 죽이는 벌을 내린다. 그리고 걸리버는 소인국을 탈출한다. 부서진 배 조각을 모아서 영국으로 떠난다. 그리고 걸리버가 여행을 또 떠나다가 강풍을 만나고 배에 있는 선원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른다. 그리고 그거에 정체는 20M 정도 되는 거인들이 쿵쿵거리며 바다로 들어온다. 걸리버는 거인을 보고 수풀로 들어가 숨었다. 하지만 그것은 수풀이 아닌 보리밭이었고 보리밭에 숨어있다가 거인 농부에게 걸려버린다. 그 농부에게 잡혀 거의 애완동물처럼 받는다.

그 농부는 걸리버를 서커스 공연을 시켜 돈벌이가 된다. 걸리버가 너무나도 많은 공연을 하여 몸이 혹사당하였을 찰나에 왕국으로 초대를 받는다. 왕비가 거금을 들여 걸리버를 산다. 걸리버를 사자마자 해준 거는 걸리버의 미니 집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식사를 하며 걸리버는 거인국 왕과 대화를 나눈다. 걸리버가 미니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에 밖을 내다보니깐 소리와 함께 걸리버의 집이 붕 뜬다. 거대한 새가 집을 들고 날아가다가 바다에 던져버린다. 그러다가 배를 만나고 구조되어 다시 돌아간다. 그리고 또 여행을 떠나다가 섬에 표류하고 돌아가기 위해 가다가 다른 섬에 가고 그 섬에서 일본을 거쳐 네덜란드를 통해서 영국으로 귀향하고 또 여행을 떠나다가 버려지고 또 섬에서 표류하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

인간 사회의 모순과 권력

-조너선 스위프트 『걸리버 여행기』, 현대지성 2019.을 읽고 쓴 서평

김민석/신흥중 3학년 2반

걸리버 여행기는 조너선 스위프트가 쓴 소설로 단순한 모험 소설이 아닌 깊이 있는 작품으로 사회와 인간에 대한 풍자를 담고 있다. 주인공이 여러 가지 섬을 여행하면서 겪은 다양한 경험들로 인간 사회의 모습을 비판하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

부패한 정치

소인국에선 당시 영국 사회의 여러 문제를 풍자한다. 소인국에서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신은 구두 뒤축의 높이를 놓고 분열되어 당파 싸움을 일삼는다. 달걀을 깨 때 두꺼운 쪽이나 얇은 쪽이나를 놓고도 싸우는 어리석은 모습은 당시 영국 정치의 갈등과 부조리한 모습을 비판하는 것이기도 하다.

강자와 약자

걸리버는 거인국에서 작고 연약한 존재로 표현되며 이는 권력의 차이를 의미한다.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 지배 하고 있다는 점을 풍자하고 있다. 걸리버 여행기에서 걸리버가 심술궂은 성격을 가진 농부에 의해 놀림거리가 되기도 했다.

스위프트가 하고 싶었던 말

스위프트는 각 여행지를 통해 당시 영국 사회의 여러 문제를 풍자한다. 소인국에서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신은 구두 뒤축의 높이를 놓고 분열되어 당파 싸움을 일삼는다. 달걀을 깨 때 두꺼운 쪽이나 얇은 쪽이나를 놓고도 싸우는 어리석은 모습은 당시 영국 정치의 갈등과 부조리한 모습을 비판하는 것이기도 하다. 거인국에서는 인간의 오만함과 비열함을 드러낸다. 특히 거인국의 왕은 걸리버를 통해 인간 사회를 관찰하며 인간의 비극적이고 어리석은 본성을 비판한다. 거인국에서의 여러 사례를 통해 평소 스위프트가 생각했던 영국 사회의 추악함을 보여주기도 한다. 또한 걸리버를 통해서 인간의 교만과 잔인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내 생각

이 작품에서 나온 사회 구조, 권력의 부조리함, 인간의 욕심 등을 날카롭게 묘사한 부분들이 현실과 닮아있어 더욱 인상 깊었다. 또한 이 작품에서 나온 사회의 모습이 현대 사회의 모습과 비슷하여 흥미로웠으며 읽을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았다.

인류가 생각해야 하는 것

-조너선 스위프트 『걸리버 여행기』, 현대지성 2019.을 읽고 쓴 서평

김상우/신흥중 3학년 2반

요즘 뉴스 기사들을 보면 전쟁, 범죄와 관련된 것들이 많다. 우리는 왜 이런 것들이 많은 사회에서 살아야 하는 걸까? 이 책은 이러한 사회를 걸리버가 여행 중 겪는 일들로 풍자하는 책이다.

인간의 추악한 모습 야후

이 책에서는 말들이 지배하고 있는 후이눔이라는 나라가 나온다. 야후는 짐승이며 말들이 키우는 노예이다. 이들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비슷한 모습이다. 야후는 이기적이며 자신의 욕망을 위해 싸운다. 걸리버가 말했다 '비록 내가 누구보다도 인류를 사랑하지만, 모든 면에서 저들보다 더 혐오스러운 존재는 일찍이 본 적이 없다.'라고 말이다. 작가는 왜 이러한 짐승을 인간과 비슷한 모습으로 표현했을까? 어쩌면 작가는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야후라 비유한 것 아닐까?

현실에서의 야후들

내가 야후의 특징을 듣자마자 이러한 생각을 했다. '현실에서의 야후들은 정치인들 아닐까?' 러우 전쟁을 일으킨 푸틴, 황령 이명박, 못 잡아먹어 안달인 국민의 힘과 민주당, 선거철 때 나오는 가짜기사들. 이 외에 수많은 비리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부패한 권력가들, 이익을 위해 벌인 전쟁과 범죄 수많은 거짓말, 이 어찌 이기적이고 자신만을 위해 서로 물어뜯으며 싸우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야후들과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이처럼 야후들은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한다.

동물보다 못한 인간

앞서 말한 말들이 다스리는 나라 후이눔, 이 나라는 거짓, 범죄라는 말이 없다. 또한 걸리버는 이 나라를 완벽한 나라라고 말했다. 작가는 왜 이러한 완벽한 나라의 주인을 동물로 했을까? 내가 생각하기로는 인간을 동물보다 못하다고 말하고 싶었기 때문인 것 같다. 실제로 동물이 사람보다 나은 동물이 있다. 바로 황제펭귄, 황제펭귄들이 추위와 눈보라에서 서로를 지켜내는 독특한 방법이 있다. 바로 펭귄들이 한데 모인 뒤 동그랗게 겹겹이 붙어 서로의 체온으로 -50°C 아래인 추위를 견디는 ‘허들링’이라는 방법이다. 허들링은 안에서 몸을 데운 펭귄은 밖으로 나가고, 바깥쪽에서 눈 폭풍으로 추위에 떨던 펭귄은 안으로 들어오면서 추위에 죽지 않게끔 한다. 이렇게 펭귄들은 서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을 희생할 줄도 안다. 우리는 이러한 황제펭귄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인간은 이성을 잘 활용하는 걸까?

걸리버가 후 이눔에서 인류에 대해 말했다. 그걸 들은 말은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평가했다. “그대들은 이성을 엉뚱한 곳에 사용했어 타고난 타락한 모습을 더욱 악화시키고, 애초에 자연이 부여하지도 않은 새로운 타락을 얻으려는 일 외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네” 이 글귀를 보고 나는 생각이 들었다. ‘온난화, 생태계 파괴 등 모두 인간이 원인인데 우리가 이성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말이다. 우리 모두 이성을 나쁜 곳이 아닌 좋은 곳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726년에 출판된 이 책이 지금까지 읽히는 건 이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모습이 바뀌지 않았고 많은 생각을 주기 때문인 거 같다. 우리는 야후인가 인간인가?, 우리는 이성을 잘 활용하는가?, 이처럼 우리 모두 계속 질문하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 후이눔처럼 전쟁, 범죄, 거짓이 없는 나라에 살 수 있지 않을까?

걸리버의 여정, 그리고 숨겨진 메시지

-조너선 스위프트 『걸리버 여행기』, 현대지성 2019.을 읽고 쓴 서평

강유환 / 신흥중 3학년 4반

조너선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는 단순한 모험 소설을 넘어 사회적 부패와 인간의 본성을 풍자하는 책이다. 주인공인 걸리버가 4개의 나라를 여행하면서 겪는 여러 사건은 단순히 흥미진진한 모험으로만이 아닌, 사회적 문제와 인간의 본성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궁금한 뒷이야기

내가 <걸리버 여행기>를 읽게 된 이유는 아주 단순했다. 내가 알고 있는 걸리버 여행기는 어릴 때 읽었던 동화였고, 소인국과 거인국의 이야기 정도가 전부였다. 그런데 걸리버 여행기의 원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원작은 얼마나 다를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나는 조너선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를 읽기 시작했다.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동화에서 보지 못했던 여러 나라와 이야기가 등장하고, 수많은 비유와 상징이 들어있다는 것이었다. 동화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느낌을 주는 이 책은 나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강자와 약자

<걸리버 여행기>에서 걸리버는 거인국에서 작은 존재로 묘사된다. 걸리버는 글룸달클리치라는 소녀의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는데, 이 장면은 권력의 책임을 풍자하여 표현한 장면이라 생각한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보호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다. 나 역시 걸리버처럼 무력한 존재였던 경험이 있다. 예전에 외국으로 여행을 갔을 때, 언어가 통하지 않아 길을 잃고 방황하던 기억이 난다. 그때 현지인들이 도움을 주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경험이 떠올랐다. 이처럼 현실에서도 강자가 약자를 돕는다면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서로 협력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면, 더 나은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스위프트의 메시지

<걸리버 여행기>는 단순한 모험 소설이 아니라, 인간의 이기심과 사회적 불평등을 풍자하는 책이다. 특히 소인국에서의 이야기는 정치적 분열과 전쟁을 풍자하고 있다. 소인국 릴리퍼트와 블레푸스쿠의 끊임없는 전쟁은 당시에 벌어졌던 나라 간의 싸움을 풍자하고, 릴리퍼트 내의 정치 논쟁과 권력 다툼은 정치적 갈등과 사소한 문제에 대한 싸움을 비판한다. 스위프트는 이를 통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하찮은 일에 얽매어 있는지 보여준다. 또 후이넘이라는 나라에서는 야후라는 인간과 닮은 생명체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매우 탐욕스럽고 잔인한 존재들로 그려진다. 스위프트는 이를 통해 스위프트는 인간의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본성을 비판한다. 거인국에서 걸리버가 작고 무력한 존재로 그려지는 것은 당시 사회의 권력 구조와 불평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 같다. 소수의 강자가 대중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풍자는 현대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사회에서도 노동자들 간의 불평등이 존재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 그리고 정치권에서의 권력 남용 문제다. 많은 정치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면서 국민을 소외시키고 있다. 스위프트의 풍자는 그 시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

고독한 결말

내가 <걸리버 여행기>를 읽으며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걸리버 여행기>의 결말이다. <걸리버 여행기>의 결말은 이러하다. 걸리버는 여러 섬을 방황하며 후이넘이라는 나라에서 지내는데 그곳에서 인간들이 본능적이고 탐욕스러운 야후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집으로 돌아가고도 사람과 어울려 지내기 싫어 사람들을 피해 다니면서 고독하게 지내게 된다는 결말이다. 내가 왜 <걸리버 여행기>의 결말을 인상 깊어 했냐면 결말의 걸리버가 마치 조너선 스위프트 본인을 표현한 것처럼 보여서다. 조너선 스위프트는 정치, 사회적 불평등, 권력 남용 등에 더럽혀진 세상에 대해 좌절감과 우울감, 그리고 고립감을 느끼며 대인관계를 피하며 고독하게 살았다고 한다. 나는 조너선 스위프트가 <걸리버 여행기>의 결말에 세상에 대해 환멸감을 느낀 본인의 모습을 표현했다고 생각한다.

걸리버 여행기는 단순한 모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룬 작품이다. 스위프트는 걸리버의 여행을 통해 권력, 사회적 불평등, 인간의 탐욕을 비판하며, 독자들에게 우리 사회와 인간 본성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이 책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준다.

이기심이라는 감정

-조너선 스위프트 『걸리버 여행기』, 현대지성 2019.을 읽고 쓴 서평

박준영 / 신홍중 3학년 4반

걸리버 여행기는 유명한 풍자 소설로 조너선 스위프트가 쓴 소설입니다. 이 책은 걸리버라는 주인공이 여러 나라를 다니며 그 나라들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1부 소인국 릴리펫 여행기, 2부 거인국 브롭딩낙 여행기, 3부 날아다니는 섬 라퓨타, 발니바비, 렉낙, 글럽덱드립, 일본 여행기를 4부에서는 말의 나라 후이눔국 여행기를 담았습니다.

나의 걸리버 여행기

이 책을 처음 받고 차례를 보았을 때 ‘진짜 책이 너무 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긴 내용을 가진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1페이지에 30줄인데 무려 400페이지를 넘는 분량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이 책의 정도 분량의 책밖에 읽어보지 않았는데, ‘걸리버 여행기를 어떻게 읽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읽기 시작하니 페이지를 넘기는 것이 너무 쉽게 느껴지는 책이었습니다.

거인국의 왕에 대하여

걸리버는 거인국의 왕과 이야기하며 왕이 재미있어할 만한 영국 사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때 이 책의 문장에서 ‘한 세기 동안 일어난 사건들이란 것은 음모, 반란, 살인, 학살, 혁명, 추방뿐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그 일들이 탐욕, 파당, 위선, 배신, 잔인, 분노, 광기, 증오, 시기, 욕정, 악의, 야심 등이 만들어낸 최악의 결과라고 진단했다.’라는 문장으로 영국 사회가 한 세기 동안에는 이기심이 만들어낸 최악의 결과만 일어났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당시 영국이 굉장히 부패한 나라라는 것과 이것을 비판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이런 사건이 정말 책 속 시대의 나라들만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인가?’ ‘이런 이기심을 갖고 사건이 생기는 것이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인가?’ 와 같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나의 이기심

이기심을 갖고 일어나는 사건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당장 우리에게서만 찾아도 다들 기억 속 한 개쯤은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기심이란 인간이 가진 본능과 굉장히 밀접한 감정입니다. 당연히 생명체로써 생존본능이 있으며 자신이 잘 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말이죠. 당신은 어떤 이기심을 갖고 어떤 사건을 일으켰나요? 아주 부끄러운 시절이지만 저는 어릴 때 식욕이 많고 떡볶이를 굉장히 좋아해서 어머니께 해달라고 하고 안 해주니 막 울면서 엄마한테 나쁘다고 하면서 빠졌던 기억이 있네요. 저는 이렇게 나라라는 시점 말고 자신이라는 시점으로 바꾸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떤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기업이 효과가 없는 제품을 효과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매우 많은 이익을 얻었다는 영상이었습니다.

기업의 이기심

영상 속 기업은 전기세가 절감되는 전기절감기라는 제품을 파는 기업이었습니다. 이 기업은 과학적 근거도 없고 실제로 효과를 본 사례가 없는 제품을 효과가 매우 좋다며 광고하고 5만 명의 가구가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5만 명, 전기절감기를 사는 주 소비층은 전기세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은 그런 사람들의 돈을 거짓말로 얻어 내어 돈을 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기심을 가진 것은 절대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이기심은 누구나 갖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이기심이 다른 것을 빼앗고 이기심으로 인한 공허를 채운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일 겁니다. 이러한 이기심을 조절하려면 우리를 한 가지를 가져야 합니다. 공동체 의식이란 것 말입니다. 공동체 의식은 자신이 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끼는 것을 말하고, 만약 영상 속 기업이 공동체 의식을 가진 기업이었다면 이 기업은 전기 절감기라는 가짜 제품을 내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300년 전 책에서 유토피아를 찾다

-조너선 스위프트 『걸리버 여행기』, 현대지성 2019.을 읽고 쓴 서평

송지후 / 신흥중학교 3학년 4반

이 글은 걸리버 여행기를 읽은 나의 온전한 주관들로 쓰였다는 것을 알린다. 우선 내가 읽은 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걸리버 여행기는 300년 전에 쓰인 어쩌면 평범한 문학 소설이지만 그 평범함 속 숨어있는 내용이 300년 동안 지속된 특별한 소설책이다. 특히 주인공인 걸리버가 여러 왕국을 방문하며 탐험한 그 왕국들 속에서 사람들의 생김새나 생활 양식, 정치나 풍습, 제도와 사상과 같은 것들을 묘사하는데 이 묘사 속에서 현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풍자의 정수를 보여주는 책이다.

서로 폄하정치는 왜 하기 바쁜가?

[걸리버 여행기]에서는 4개의 국가가 나오는데, 그중 소인들이 사는 국가, 릴리펫 왕국이 나온다. 릴리펫 왕국에 사는 소인들은 그 크기가 12cm~15cm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상대적으로 매우 큰 걸리버를 상대할 만큼 발전된 지식과 기술을 지닌 국가이다. 이러한 기술로 릴리펫 사람들은 걸리버의 신체 치수를 재 걸리버의 옷을 만들어주거나 닭을 이용해 걸리버가 먹을 음식의 양을 구한다. 덕분에 걸리버는 소인국에 와서도 큰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었고, 그 또한 릴리펫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높이 샀다.

하지만 릴리펫 왕국은 두 개의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 하나는 나라 안에서 일어난 정당 싸움이었고, 다른 하나는 나라 외부에서의 문제인 강력한 타국과의 전쟁이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의 원인은 모두 사소한 것이었는데, 예를 들어, 정치인들이 주로 서로를 폄하하고 비난하는 이유는 서로의 신발 굽 길이였으며 전쟁의 발단으로 문제가 된 사항은 '계란을 어느 쪽으로 깨서 먹어야 하는가?' 였다. 계란을 어디로 깨서 먹냐가 얼마나 과연 중요하며, 걸리버가 봤을 때 소인들끼리 서로의 신발 길이를 지적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워 보였을까?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들로 논쟁을 벌이고 그 논쟁 속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결국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과정이 아닌 자신의 의견이 상대의 의견보다 더 중요하고 추잡한 말다툼 속 우세를 겪었다는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것이라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배운 정치란 얼마나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가. 내가 여기서 배운 정치는 국가의 올바른 수립과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우는 것이 아닌, 정치, 발전을 위한 논쟁, 의견 대립이라는 보기 좋은 명분 뒤에 숨어 권력 있는 자들이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를 즐기고 열등과 질투, 증오만이 남은 환경 속에서 조금의 이득과 우월감을 취득하기 위해 서로를 폄하하고 비난하는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인간만의 지식 산물이라는 것이다.

똑똑하다는 오만

[걸리버 여행기]에서 걸리버가 탐험하게 되는 세 번째 여행지는 천공의 성 라퓨타이다. 이곳 라퓨타는 수학, 철학과 같은 이성 사고를 국가 최고의 가치로 뽑는, 수 과학이 지나치게 발전된 국가이다. 이들은 수학과 음악을 잘하고 즐기는 데에는 비상하고 위엄한 모습을 보였지만, 일상적인 생활이나 활동에서는 아주 서투르고 형편없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은 책에서 그들을 형용하는 표현이다. ‘그들은 수학과 음악을 제외한 다른 모든 주제를 생각할 때는 무척 느리고, 어쩔 줄 몰라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삶을 추구하는 라퓨타 인들은 인간의 감정 영역인 공감과 이해를 못 해 그들의 인간성을 잃은 지 오래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통의, 평범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또한 그들의 과학자는 햇빛을 유리병에 가두어 사고팔 수 있게 만들고, 얼음을 태워 화약으로 만들게 하고, 사람의 변을 다시 먹을 수 있게 만드는 등 비실용적인 실험들만 연구하였다. 이들이 비현실적인 문제에만 몰두하여 연구를 진행할 때 이 국가의 백성들은 인간적인 삶도 누리기 힘들었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들로 나라를 운영하기에는 충분했지만, 이들은 무엇을 위해 이런 유용하지 못한 실험을 멈추지 못한 걸일까.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능력인가 저주인가. 인간이 더욱 편하게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학의 발전은 필연적이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발전하여 인간 본연의 감정과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타인과 타인이 공존하는 공동체 사회에서 타인을 이해할 수 없으면, 인간성을 잃어버리면 그 기술들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일까. 과학의 무한한 발전만이 인간에게 행복과 더 나은 삶을 주는 것도 아니며, 우리는 이미 보유한 기술들과 협력을 이용한다면 충분히 다수가 살기 좋은 국가를 만들 수 있다. 우리는 [걸리버 여행기]를 통해 편협한 발전은 되려 퇴보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고, 지식이 똑똑한 삶을 살게 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공동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가치,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 감정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과학은 만물 발전의 열쇠가 아니므로.

이성과 인간성의 경계

마지막 탐험지인 후이눔국은 말이 국가의 지배층, 주체인 국가다. 후이눔국에 지배층인 말들은 이상적인 이성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는데, 그들은 전쟁, 탐욕, 거짓 등 부정적인 요소들과는 거리가 먼 존재들이다. 그러나 이 국가에는 인간을 닮은 야후가 있다. 야후들은 야만적이고 탐욕 가득하며, 오로지 본능에만 충실한 존재들이다. 이런 야후들을 말들은 경멸하고 통제한다. 후이눔국에서 말들은 인간의 완벽한 이성을 나타내고, 야후들은 부정적인 본능만 나타내며, 걸리버는 후이눔국을 유토피아라 여긴다. 말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만 하게 되지만, 감정 없는 이성이 인간성을 나타낼 수 있을까. 탐욕과 본능에만 충실한 야후는 분명 보기 꺼려지는 존재다. 다만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없는 이상적인 감정들만이 남

은 곳을 과연 유토피아라 부를 수 있을까? 불행과 행운,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듯 탐욕이 있기에 베품이 있고 본능이 있기에 이성적인 사고가 되는 것이다. 이는 모두 이성과 감정,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잡기 위한 분명한 경계이다. 야후가 있었기에 걸리버는 말들이 완벽한 존재로 보였을 것이다. 말들이 야후에게 50인분의 고기를 나눠 주는 것이 아닌 50인분의 고기를 5명이 나눠 가지는 법을 가르쳤다면 후이눔국은 또 다른 양상을 띠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나는 말들을 완벽한 존재로 여기지 않으며, 야후 또한 교화의 여지가 없을 거로 생각하지 않는다. 말들과 야후가 서로 원하는 상태에서 공존할 수 있고, 이해관계를 찾을 수 있다면 그때가 바로 이성과 인간성이 결합한 유토피아지 않을까. 그것이 만약 결합투성이더라도.

결국 작가가 [걸리버 여행기]를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유토피아는 무엇이였을까? 이 책을 읽으면서 각 국가의 장단점을 서로 알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 사회가 부정으로만 가득 찬 사회라고 할 수 있었을까? 작가는 4개의 왕국과 영국을 대조하면서 영국을 비판하고 이성과 감정이 결합하는 순간 모순이 발생하여 유토피아는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표현하였지만, 그 국가들과 비교한 우리 현대 사회를 유토피아라 할 수는 없어도 디스토피아라고도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작가는 유토피아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표현하였고 이에 어느 정도 동감하는 바이다. 하지만 4개의 왕국을 보면서 지금의 우리 사회가 절대 발전할 가능성이 없는, 가망이 없는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기에 작가의 말에 어느 정도 반박하는 셈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살아가기 위해 가기 위해 서로 타협해야 할 부분들과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가치들을 가슴에 묻고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영원히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

-조너선 스위프트 『걸리버 여행기』, 현대지성 2019.을 읽고 쓴 서평

심진서 / 신흥중 3학년 4반

이 작품을 읽게 된 계기는 그저 국어수행평가라는 사소할 수도 있는 이유였지만 여러 작품 중 걸리버 여행기를 고른 이유는 여태 우리가 알던 걸리버 여행기는 검열된 내용이고 많은 풍자와 검열된 내용에는 저자의 어떤 생각이 들어있었는지 궁금하여 걸리버 여행기를 선정하게 되었다.

걸리버 여행기는 조너선 스위프트라는 저자에 의해 쓰인 소설이다. 조너선 스위프트는 『통 이야기』를 시작으로 『걸리버 여행기』까지 여러 사회 풍자 소설을 쓴 소설가이다. 걸리버 여행기는 의사인 걸리버가 배를 타고 항해 중 풍랑을 만나서 도착한 “릴리펫”이라는 소인국 섬에 도착하여 소인국의 국왕이나 고위 관직들과의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고 인접한 소인국과의 전쟁에서도 활약을 하여 승리를 하였지만, 걸리버를 시기하는 세력에 의하여 추방당해 본국인 영국으로 귀환한다. 그 뒤에는 소인국과는 반대로 “브롭딩낙”이라는 거인국에 가게 된다. 그곳에서는 거인들의 구경거리가 되어 서커스를 하는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게 된다. 여왕에게 팔려 갔다가 독수리에게 잡혀 날아가다 겨우 탈출하게 되어 영국으로 귀환한다. 이 외에도 하늘에 떠 있는 섬 “라퓨타”나 말의 나라 “후이눔”을 가게 되기도 한다. 후이눔국에선 조너선 스위프트가 이 소설에서 하고 싶던 이야기가 가장 잘 표현된 부분이다.

사소한 행동이 큰 피해도 불러올 수 있다

소인국과 거인국의 차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사람들의 크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크기에서 일어나는 차이로 서로가 각자의 도움이 상대방에겐 피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인국에서 궁전의 불을 소변으로 진화했지만, 걸리버 나뭇의 도움이 소인국 사람 중 몇몇은 죽을 뻔했다는 사람도 있고 홍수로 집이 쓸려갈 뻔했다는 말도 있었었다. 역으로 거인국에서도 거인이 처음 걸리버를 봤을 때 걸리버를 평범하게 잡았지만, 걸리버는 아픔을 표시했다. 이처럼 서로 입장을 모르니 선의를 베풀어도 피해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서로의 입장이더라도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한다 해도 우리는 상대의 입장이 아니었기에 이해할 수 없다. 아무리 걸리버가 소인국과 거인국을 모두 가봤다 하더라도 각자의 입장을 완벽히 이해하는데 아날 수밖에 없다. 소인국에서는 가치나 존재를 인정받고 귀한 대접을 받았던 반면 거인국에선 작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며 존엄성을 짓밟히는 부분에서 그저 크기만으로 인간의 가치가 변하는 인간들의 상대적임을 알 수 있다. 걸리버가 거인과 소인의 입장이 되어보았다 해서 완벽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이다.

서로를 존중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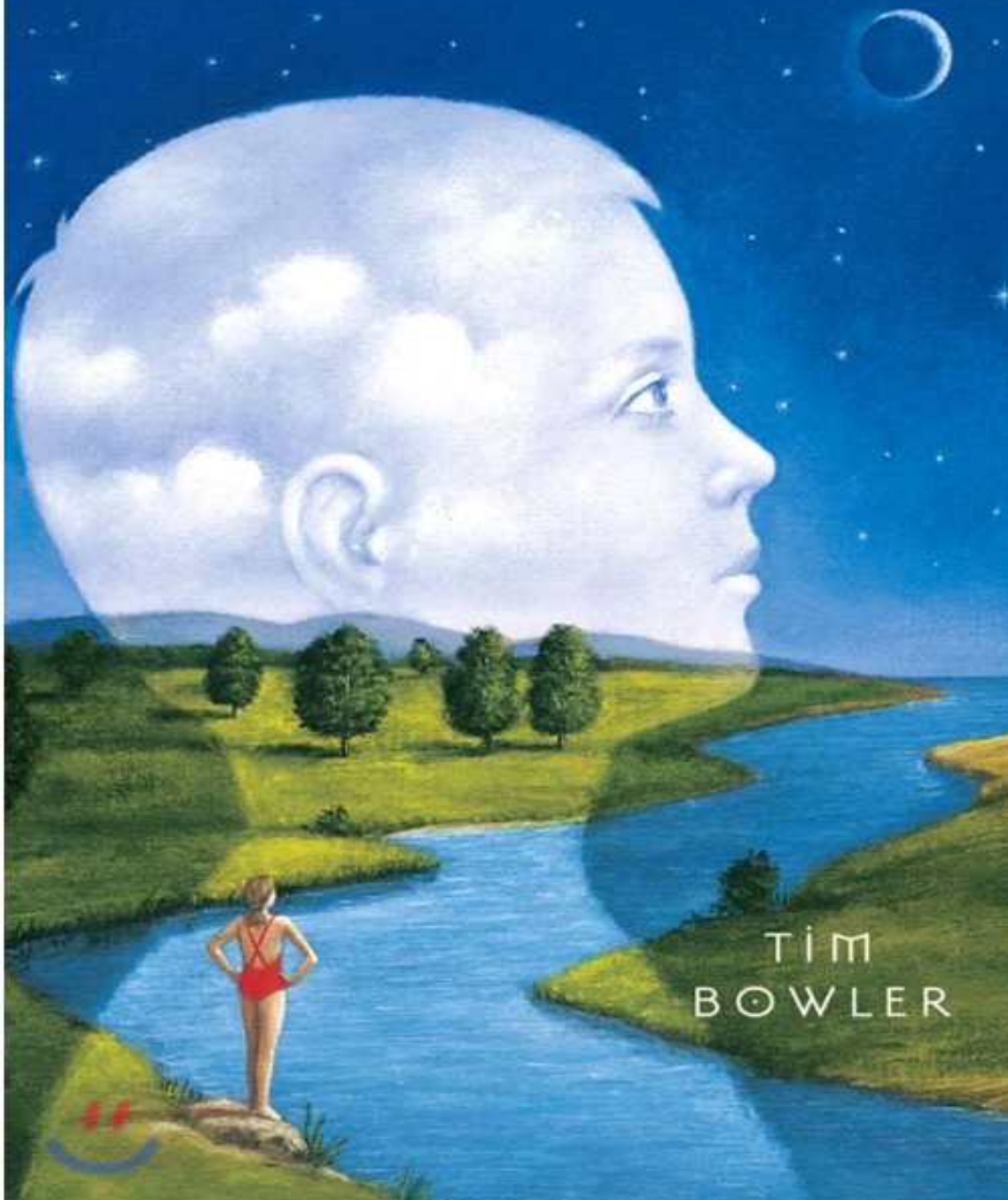
TV를 보면 종종 볼 수 있는 정치인들의 대화를 한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본인들의 의견부터 치켜세우다가 불리하면 모르는 척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다. 이런 모습이 『걸리버 여행기』의 모습 중 소인국의 모습과 비슷한 느낌을 풍긴다. 걸리버에게 본인들의 규칙을 지키는 조항을 통해 식량과 자유 등을 제공한다고 하였던 것에 대했지만 걸리버의 시기 세력의 이간질에 명예를 포기하고 순응한 걸리버에게 사형을 내려 굶겨 죽이려 한 것에 대한 무책임은 현재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정치계와 매우 유사하다.

양보와 배려 그리고 도움과 피해

『걸리버 여행기』를 읽고 평소엔 생각 없이 놓치고 있던 배려 중 피해가 있다는 걸 알았다. 그저 단순하게 생각하여 나 자신 입장에서의 배려가 상대가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양보는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굽히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이지만 배려는 마음을 써서 보살피고 도와주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이 상대의 입장까지 고려하지 못하여 피해가 된다면 그것은 정작 배려라고 할 수 있을까? 그 의미를 우리는 생각하지 못해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지까지 생각해 봐야 한다. 『걸리버 여행기』의 배려들도 마지막엔 모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상대에게 도움을 주려는 행동을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의도와는 다른 피해를 만들게 돼버린 걸리버나 그 외의 인물 같은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책을 소개하게 되었다.

WINNER OF THE CARNEGIE MEDAL

RIVER BOY



생명의 순환과 반복

-팀 보올러, 『리버보이』, 다산책방, 2007년.을 읽고 쓴 서평

강준혁 / 신흥중학교 3학년 1반

팀 보올러의 “리버보이”를 읽으면서 나는 생명의 순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제스라는 소녀가 할아버지를 잃고 겪는 슬픔과 고통을 기회로 일어서 새롭게 살아가는 모습은 나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책으로 나는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느꼈다.

사랑하는 사람은 죽어서도 곁에 있다

제스가 할아버지의 유골을 폭포에서 뿌리고 난 뒤 자신도 폭포로 뛰어내리는 장면은 나에게 있어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이 장면을 보고 나는 제스가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다시 일어선다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제스가 폭포로 뛰어내린 이유가 할아버지를 다시 보고 싶었기 때문이 아닐까 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사람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생각나면서 다시 보고 싶어지기 때문이다. 나도 어릴 때 왕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제스에게 공감이 된다.

생명의 순환은 물과 같다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지만, 바다는 넘치지 않는다”라는 구절을 읽고 나는 생명의 순환은 물과 같다고 생각했다. 강에서 바다로 흐르며 이리저리 순환하며 반복되는 물처럼 생명도 순환한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가 죽고 할아버지를 이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제스도 생명의 순환으로 볼 수 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다

이 책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할아버지가 죽고 나서 리버보이라는 존재로 새로운 시작을 한 것도 그렇고 할아버지가 죽고 나서 제스가 할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는 것도 제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우리 주변에서도 생명은 계속 순환한다

생명이 죽으면 땅속으로 돌아가고 그로 인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자란다. 예를 들어 자연 속에 살던 평범한 새가 죽으면 땅에 흡수되어 자연으로 돌아가고 그로 인해서 나무나 식물이 자라고 다른 동물들이 나무의 열매나 식물을 식량으로 먹으며 살아가고 그 동물들이 죽으면 또 자연으로 돌아가고 반복된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생명은 계속해서 순환한다.

불필요한 생명은 없다.

위에서 쓴 예시를 보았을 때 나는 평범한 새라고 했지만 사실 그 새는 다른 생명이 살아갈 수 있게 도움을 준 소중한 평범하지 않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인간도 그렇다. 자신이 이 세상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이 세상 즉 자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자라나는 데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 세상에 불필요한 생명은 없다는 것이다.

생명의 깊이는 경이로울 정도로 깊다

이 책은 생명과 사랑, 기억의 소중함, 생명의 순환을 다시금 생각하고 느끼게 해주는 책이었다. 제스의 이야기를 통해 나는 생명의 소중함과 순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인연을 오래도록 유지하고 기억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아마도 이 책은 내 마음속 깊이 남아 오래도록 추억하게 될 것 같다.

죽음. 삶을 정의 내리는 것

- 팀 보올러 「리버보이」 (리커버 특별판), 다산책방 2024.을 읽고 쓴 서평

김윤규 / 신흥중 3학년 1반

우리 모두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언젠간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 리버보이라는 책은 삶의 과정과 죽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인공 제스와 죽음을 앞둔 할아버지와 함께 내며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며 할아버지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 도움을 주는 이야기이다.

언젠간 도달한다.

“강은 끝에 도달했을 때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한다.” 강은 시작하는 곳부터 바다로 나아가기까지 정말 긴 과정이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강처럼 긴 과정을 시작하고 끝내 바다로 도달하는, 무언가를 성취하는 순간이 있기 마련이다. 그 과정이 길고 험난할지라도 언젠간 끝에 도달하기 마련이다. 비로소 끝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가 바라왔던 목표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은 더욱 의미 있게 되는 것이다. 바라던 목표로 향하는 과정이 길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 강은 아무리 길어도 바다에 도달하기 마련이다. 바라던 목표가 아무리 높더라도 언젠간 이루기 마련이다.

아름다운 죽음

책에 “아름답지 않은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죽어가는 과정이겠지.”라는 문장이 있었다. 삶의 과정이 아름답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살아가는 과정에는 고난과 역경을 거치기도 하며 때로는 죽을 만큼 노력해야 하는 순간도 존재한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과정과 노력은 모두에게 존재한다. 그때 포기해 버리는 사람이 있지만, 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 물론 포기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과정과 노력이 있어야 당신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 삶의 과정이 끝나면 죽음이란 결과물이 남는다. 그 과정이 의미 있을수록 죽음이 더욱 아름다워진다.

삶의 과정을 정리

이 작품에 나온 할아버지는 자신이 곧 죽음을 인지하고 삶을 마무리 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와 자신의 마지막 그림을 완성하였다. 삶을 정리하고 마무리할 기회는 중요하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시 생각해 보고 주변 관계를 정리해 보며 죽음을 아름답게 만들 기회라고 생각한다. 호스피스 병원에 있는 환자들도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고 있기에 가족들, 주변 지인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며 삶을 마무리해 나간다. 자기 죽음이 남들에게 큰 상처가 되지 않도록, 허무해지지 않도록 만들 좋은 기회다.

허무한 죽음 그리고 아름다운 죽음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죽음이란 허무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마주하게 되면 다 의미 없어지게 된다. 친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처음엔 믿기지 않았고 한동안 슬픔에 잠기기도 했다. 그 당시에 나는 죽음이란 것은 갑자기 나타나 다 허무하고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책에선 죽음이란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삶을 마무리 하는 결과물이라고 말하고 있다. 허무한 죽음, 아름다운 죽음. 무엇이 정답인가 다시 생각해 보면 죽음이란 것이 과연 다 무의미하게 만들진 않았다. 죽음이란 것이 다 허무하지도 다 아름답지도 않았다. 사실 죽음이란 것은 때가 되면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때가 될 때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 결과물인 것 같다.

“앞으로 더 많은 내일을 살 것이고 더 성장할 것이다.” 나 그리고 이 책의 주인공인 제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에겐 앞으로 살날이 많이 남아있다. 그 남은 동안 이 무의미해지지 않도록 더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한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더욱 성장할 수 있다. 우리의 죽음이 더욱 아름다워지도록.

이별과 성장, 리버보이가 전하는 죽음의 의미

- 팀 보올러 「리버 보이」 (리커버 특별판), 다산책방 2024.을 읽고 쓴 서평

박해준 / 신홍중 3학년 1반

사람은 언젠간 죽는다. 언제 올지 모르는 죽음과 누군가와의 이별에 대해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이 책에선 언제 올지 모르는 죽음과 누군가와의 이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바꿔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는 성장 소설이다.

이별 여행

주인공 제스는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여행을 떠나며 이야기가 시작된다. 제스의 할아버지는 예술가로서 평생을 살아왔고, 여행 중에도 완성하지 못한 그림, 리버보이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여준다. 제스는 이 여행이 단순한 휴식이 아닌 할아버지와 마지막을 함께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임을 깨닫게 된다.

점점 제스는 할아버지와의 영원한 이별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감이 몰려온다. 하지만 신비로운 소년 리버보이를 만나면서 성장의 과정에서 겪는 아픔과 그것을 통해 얻는 성숙을 잘 만들어낸 소설이다.

고집스러운 예술가의 집념

할아버지가 병에 걸려 아픈데도 그림 그리는 장면이 있다.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할아버지를 위해 제스네 가족들은 말리며 병원에 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지만 괜찮다며 병원에 가지 않는 장면이 있다. 이 장면을 통해 할아버지는 고집이 세고 자기주장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아파도 대충 그리지 않고 정말 몸에 남아있는 모든 힘을 쥐어짜 리버보이를 완성 시키려는 모습이 대단하게 느껴졌다.

할아버지와 비슷한 사례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할아버지의 완성된 죽음과 비슷한 사례가 떠올랐다. 바로 김홍빈 대장이다. 김홍빈 대장은 데날리 단독 등반 중 동상으로 인해 열 손가락

락을 잃었다. 하지만 김흥빈 대장은 열 손가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한다는 사람들의 말에 굴하지 않으며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마음으로 히말라야를 등반했다. 이 점에서 병원에 가자는 가족에 말에도 굴하지 않고 마지막 작품인 리버보이를 완성하려는 할아버지와 닮았고 그렇게 장애인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했지만, 하산하는 과정에서 절벽에 떨어져 결국 실종이 돼 사망하게 되었지만, 히말라야 14좌 완등을 이루고 간 점에서 할아버지의 완성된 죽음과 비슷한 것 같아 이 사례가 떠올랐다.

죽음을 통한 성숙과 깨달음

이 책의 내용은 단지 죽음을 슬퍼하는 내용이 아닌, 그 이별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하는 긍정적인 내용이다. 제스는 할아버지와의 이별이 다가오자 두려움에 이별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하지만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서 만난 신비로운 소년 리버보이를 통해 이별을 받아들이는 장면이 있다.

이 장면을 통해 책에선 죽음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것을 전해 주고 있다.

이별의 후회와 성찰

주인공 제스는 죽음은 아름답지 않다고 말한 장면이 있다. 나는 이 책을 보기 전까진 죽음은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나도 제스와 비슷하게 할머니와 이별을 경험했다. 그때 나이는 중1 처음 겪어본 이별에 나는 적응하지 못하고 한동안은 이별을 부정하며 살았었다. 나는 중3 이 책을 읽고 나서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은 아 좀 더 빨리 읽어볼걸 이였다. 내가 만약 이 책을 좀 더 일찍 읽었더라면 처음 마주한 이별에도 당황하지 않고 이별을 받아들이고, 할머니와 함께한 시간을 기억하고 할머니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을 것이다.

나는 이 책을 죽음에 대해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왜냐하면, 이 리버보이라는 소설에서 죽음은 단지 끝이 아니라, 삶의 또 다른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므로 이 책을 읽고 나면 부정적이었던 죽음이 조금이나마 긍정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누군가와 이별을 조금 더 평온하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삶과 죽음

- 팀 보올러 「리버 보이」 (리커버 특별판), 다산책방 2024.을 읽고 쓴 서평

사육진 / 신흥중 3학년 1반

모두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늘 결국 모두 죽음을 맞이한다. 돈이 많던, 지식이 많던, 유명하던, 결국 모두 죽음을 맞이한다. 하지만 그 죽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따라 그 인생의 가치는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리버보이』는 할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소녀(제스)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인생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

『리버보이』에는 ‘인생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 대사를 우리의 삶과 비유해보면 강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하여 끝없이 흐르며 많은 경로를 따라갑니다. 강물은 다양한 지형을 만나고, 때로는 폭포를 만나거나 잔잔한 호수를 지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러 경험과 사건을 겪으며 흘러갑니다. 강의 물줄기가 결국 바다에 이르듯, 인간의 삶도 어느 순간 끝에 다다릅니다. 하지만 강물이 바다에 흘러가듯, 우리의 존재와 기억은 죽음 이후에도 이어지며, 다음 세대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계속해서 기억됩니다. 이렇게 강은 시작과 끝, 그리고 그사이의 여정을 통해 삶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경험이 강물처럼 흘러가며,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비록 육체는 사라질지라도, 우리의 존재와 기억은 다른 이들에게 남아 삶의 가치를 더욱 깊게 이해하게 해줍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법

책에서 리버보이는 제스에게 ‘강물은 알고 있어. 흘러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생기든, 어떤 것을 만나든 간에 결국엔 아름다운 바다에 닿을 것임을. 알고 있니? 결말은 늘 아름답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라는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리버보이는 항상 바다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결국엔 바다로 떠났다. 이것은 결국 할아버지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그리고 바다는 새로운 기회로 가득 차 있다. 할아버지가 다시 환생하시든, 또는 천국으로 가시든, 할아버지는 심장 발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다. 혹시 수영도 다시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바다는 끝이기도 한 동시에 다른 강으로 흘러가는 시작이라는 것이다. 나는 원래 죽음을 맞이하면 모든 게 끝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책을 읽어보고 나서는 죽음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의문점이 들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죽는데 왜 살아가야 하는가? 사실 이 질문에 정답은 없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고자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삶의 의미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죽음이 불가피한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사랑하고, 성장하고, 경험하고,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알고 있기에 더욱 소중한 순간들을 느끼며,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것도 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삶의 목적을 외부에서 찾기보다는,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의미 있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의 순간을 충실히 살며, 타인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도전과 성장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며, 결국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일 것입니다.

가치 있는 죽음

나는 『리버보이』에 나오는 할아버지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예술에 열정을 바쳤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으며, 죽음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는 가족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남기며, 예술가로서도, 한 인간으로서도 자신의 삶을 완성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산은 단순한 작품만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여정에서 보여준 성찰과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면서도 끝까지 의미 있는 삶을 살았고, 그 과정에서 가치 있는 죽음을 맞이하였다. 그럼 가치 있는 죽음이란 무엇일까? 이것도 많은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지만 결국 "가치 있는 죽음"이란 단순히 죽음의 방식에 국한되지 않고, 그 죽음이 개인의 삶의 의미와 연결되고, 남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결국 각자의 가치관, 신념, 삶의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삶을 더욱 빛나게 하고, 그 이후에도 가치를 남길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저는 저 또는 제 주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저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언젠가는 일어날 그 일들이.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그 두려움을 떨쳐냈습니다. 『리버보이』는 상실과 성장, 삶과 죽음의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깊게 성찰하게 해주었습니다. 저와 같이 죽음이 두렵거나 주변에 곧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책을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강의 흐름

-팀 보올러 「리버 보이」 (리커버 특별판), 다산책방 2024.을 읽고 쓴 서평

박태하 신흥중 3학년 1반

책을 읽게 된 계기

처음 리버보이라는 책의 제목을 보고 강을 좋아하는 소년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해서 리버보이를 읽고 이 서평을 쓴다.

인상 깊은 구절과 그 이유

인상 깊은 구절을 말하기 전에 먼저 이 책의 줄거리는 할아버지는 평생 그림을 그렸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며 살아왔던 인물이다. 몸이 쇠약해져 자신의 마지막을 직감하고 할아버지가 고향에 돌아가 그림을 그리는 이야기이다. 할아버지는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아파한다.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한다. “병원으로 가고 싶지는 않다. 아직은 말이야 그림을 완성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기든 상관없으니.”라고 할아버지가 말한다. 나는 이문장이 인상 깊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삶이 항상 아름다운 건 아냐. 강은 바다로 가는 중에 많은 일을 겪어. 돌부리에 차이고 강한 햇살을 만나 도중에 잠깐 마르기도 하고. 하지만 스스로 멈추는 법은 없어. 어쨌든 계속 흘러가는 거야. 그래야만 하니까. 그리고 바다에 도달하면,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준비를 하지. 그들에겐 끝이 시작이야. 난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껴 이문장이 인상 깊은 이유는 강은 다양한 장애물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흐르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이는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힘든 순간들도 결국 지나가고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바다에 도달한 후의 변화는 고통과 시련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아빠 내가 알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지” 제스는 이 말을 하고 할아버지의 유골을 강에 뿌렸다. 이 구절이 인상 깊은 이유는 제스가 리버보이를 만났던 강의 시작점에서 할아버지의 유골을 뿌리면서 더 이상 할아버지와 이별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소녀로 성장한 거 같고 할아버지와 제스는 서로를 아끼는 것 같아 인상 깊었다.

책과 연관 지은 나의 모습

책에서 제스가 이러한 말을 했다. 할아버지가 쇠약해지셔서 결국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었다. 책에서 제스가 느끼는 불안감은 나에게도 익숙한 감정이었다. 할아버지가 건강이 나빠지셨을 때 나도 제스처럼 많은 생각을 했었다. 언제까지 함께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지만, 할아버지에게 잘해드린 모습보다 못 해 드린 모습만 생각이 났다. 그래서 그런 건지 제스가 할아버지에게 하는 행동들처럼 내가 나의 할아버지에게 조금 잘해드렸다면 할아버지를 편하게 보내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후회를 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그런지 제스가 할아버지에게 애정과 걱정을 동시에 느끼는 모습은 내게도 큰 울림을 주었다. 이 책을 통해 제스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연결되어 그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책을 읽으며 제스와 함께 성장해가는 느낌을 받았다.

작가가 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

삶의 여정에서 이별과 상실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그것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기억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살아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을 것이다. 결국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이어진다고 전달하는 것 아닐까 생각한다.

책을 읽고 느낀 점

리버보이는 할아버지이다. 할아버지의 어렸을 적 모습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의 유령이 나타나 손녀와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을 수도 있다.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고 손녀에게 전하기 위해 나타난 망령이라고 할 수 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까지 그렸던 강 그림 속에는 리버보이의 얼굴이 숨어있었다. 그것을 보고 할아버지의 오랜 친구는 자화상이라고 칭했다. 결국 리버보이가 할아버지의 어린 시절 모습을 하고 있었다. 강에서 바다까지 헤엄쳐 가는 것은 할아버지의 소원이었다. 리버보이는 바다로 이어지는 강을 보며 사람의 일생과 같다고 말한다. 굽이쳐 흐르고 곧게 흐르고 빠르게, 느리게 흐르다가도 결국에는 거대하고 평온한 바다와 마주하게 되는 강이 사람의 인생과 닮았다고 한 것이다.

리버보이

-팀 보올러 「리버 보이」 (리커버 특별판), 다산책방 2024.을 읽고 쓴 서평

15살인 제스는 부모님과 할아버지와 살고 있다. 어느 날 지병이 있던 할아버지가 급속도로 건강이 나빠졌고 병원으로부터 할아버지가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진단을 받았다. 제스와 가족들은 할아버지를 모시고 할아버지가 살던 고향으로 여행을 떠나게 된다. 그곳에서 제스는 신비로운 소년을 만나게 된다.

삶과 죽음

“삶이 아름다운 건 아니야. 강은 바다로 가는 길에 수많은 시련을 겪지만 스스로 멈추는 법은 없어 계속 흘러가지, 그러다 바다에 도착하면 새로운 모습이 되지. 그들에겐 끝이 새로운 시작이야.”

리버보이는 강을 삶에 비유한다. 강은 빠르게 흐르다가, 느리게 흐르고 굽이 없다가, 굽이 생겨나기도 한다. 그래도 어떠한 일이라도 바다에 도착한다. 우리들의 삶도 비슷하다. 우리는 죽음에 다다르기까지 많은 굴곡이 생겨난다. 또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별을 겪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도 강처럼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 멈추고 싶어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좌절하여 넘어져도 새로운 시작점이라 생각하고 딛고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글을 읽으며

리버보이를 읽으며 할아버지가 제스를 생각하는 마음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왜냐 할아버지는 작 중 중반으로 갈수록 자신만 생각하며 제스를 밀어내고 고집을 피우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해간다. 하지만 작 중 후반에서는 그 누구보다 제스를 생각하고 있으며 제스를 밀어내려고 했던 것은 일부로 악한 인상을 남겨 이미 없는 자신에게 얽매이지 말고 잇고 앞으로 살아가기를 빌었을 것이다. 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은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닌가 싶었다.

삶과 죽음에 대하여

- 팀 보올러 「리버 보이」 (리커버 특별판), 다산책방 2024.을 읽고 쓴 서평

이유승 / 신흥중 3학년 2반

우리는 항상 죽음을 두려워한다.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혹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지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으므로 우리는 공포를 느끼고 죽음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영원한 단절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이별과 상실은 매우 큰 감정적 상처를 남기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더욱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책은 삶을 소중하게 관한 책이다.

리버 보이가 전하고픈 메시지

리버 보이가 우리에게 전하고픈 메시지는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거 같다. 리버 보이를 읽다 보면 제스와 할아버지의 여정을 통해 할아버지는 자기 죽음을 인식하면서도, 그는 제스에게 “인생은 한 번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말하며, 그 소중함을 강조하고 할아버지가 생의 마지막 작품인 "리버보이"를 완성하는 장면은, 그의 삶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여전히 창조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제스는 할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음을 점차 깨닫게 되고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제스는 그와의 기억과 경험을 통해 그가 여전히 자신의 삶 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결국, 리버보이는 죽음을 통해 삶의 단순히 자신의 삶이 짧다는 것만이 아니라,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순간들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준다, 이로써 리버 보이가 우리에게 전하고 메시지이다.

리버 보이와 연관된 나의 경험

리버 보이가 연관된 나의 경험은 초등학교 6학년일 때 증조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급히 장례식장으로 달려가 증조할머니의 사진을 안고 운 적이 있다. 증조할머니는 어릴 때 나에게 사랑과 지혜를 주셨고, 함께 시간을 보낼 때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곤 했었고 증조할머니는 나에게 삶의 교훈을 가르쳐 주셨고, 나는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며 항상 따뜻한 기분을 느꼈고 하지만 증조할머니가 아프고 점점 몸이 쇠약해지는 모습을 보며, 나는 죽음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할머니가 떠나시면 더 그와의 소중한 기억을 만들 수 없고, 함께 웃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슬픔에 잠겼고 할머니와의 이별을 상상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리버보이에서 제스는 할아버지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나 역시 증조할머니와의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증조할머니가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할머니가 남긴 기

역이 영원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리버보이는 죽음이 삶의 일부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나와 증조할머니와의 관계를 통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고 할머니는 이제 세상에 없지만,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처럼,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사랑과 연결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리버보이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리버 보이 작가의 의도

리버보이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이 삶의 한 부분임을 인정하라는 의도를 가지고 할아버지와 제스의 관계를 통해 죽음이 단순히 끝이 아니라, 삶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야 할 것을 배우게 되고 이 메시지는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다음으로 소설은 죽음을 통해 삶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그 속에서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고 리버보이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라는 의도를 전달하며, 죽음을 통해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글을 읽으며 죽음이 단순한 끝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임을 일깨워주었고 할아버지와 제스의 관계를 통해, 죽음이 두렵고 힘든 순간이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사랑과 기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제스가 할아버지와 마지막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두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고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인간적인 감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죽음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위로를 받았고 삶의 유한성을 인식하면서도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

부딪치고 부서져도 멈추지 않는 강물처럼 우리의 삶은 계속 흘러간다.

-팀 보올러 「리버 보이」 (리커버 특별판), 다산책방 2024.을 읽고 쓴 서평

최유준/ 신흥중 3학년 2반

주인공 제스는 수영을 사랑하는 소녀로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병으로 위독해지자 그와 함께 시골 마을로 떠난다. 그곳에서 제스는 리버보이라는 신비로운 존재를 만나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

인상 깊은 부분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그림에 제목을 붙이는 부분. 할아버지는 원래 그림에 제목을 안 붙였는데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그림에 제목을 지었는데 할아버지는 리버보이로 알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서 제스는 리버보이가 자신에게로 왠지 아주 중요한 것처럼 느꼈다. 이것으로 리버보이는 제스에게 아주 중요한 존재로 예상된다.

기억할 문장

그런데 별안간 네 아빠가 물음을 터뜨리는구나.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빠에게 하신 말씀을 책의 내용이 끝날 때까지 이야기 해주지 않아서 계속 기억에 남아서 궁금하게 만들었다. 리버보이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삼촌 할아버지 생각이 났다. 삼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무 감정이 없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 왜 슬퍼하지 않았나 그때 많이 울걸 계속 생각나고 가끔 삼촌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울컥한다.

이런 일을 겪고 나는 이별과 죽음에 대하여 더 알 수 있었다.

이런 일을 처음 겪고 삼촌 할아버지와 이별을 했다. 그 당시에는 아무 감정이 없었다.

이별과 죽음은 최대한 그때 슬프게 이별을 맞이해야 한다. 결국에는 후회한다. 나도 아직까지 후회한다.

변화의 물결

- 팀 보올러 「리버 보이」 (리커버 특별판), 다산책방 2024.을 읽고 쓴 서평

채성민 / 신흥중 3학년 2반

팀 보올러의 "리버보이"는 성장, 자아 발견,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를 탐구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강을 따라 떠나는 여정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그립니다. 이 소설은 강이라는 배경을 통해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깊이 있게 탐구하며, 갈등과 감정의 복잡함을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팀 보올러는 자연을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인물의 감정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로 사용하여, 독자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주인공의 변화는 강의 흐름처럼 자연스럽게 필연적이며, 이는 독자가 자신의 성장 과정을 돌아보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 우정, 그리고 자아 탐색을 통한 치유의 메시지는 모든 세대의 독자에게 울림을 줍니다.

보올러의 섬세한 문체와 강렬한 주제는 "리버보이"를 단순한 청소년 성장 소설을 넘어,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깊은 작품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 책은 독자가 자연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변화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우리에게 전하는 한마디

변화는 언제나 두렵지만, 그 속에 숨겨진 가능성을 발견하는 데 용기를 가지세요.

글쓰이의 의도

팀 보올러는 "리버보이"를 통해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작품을 창작했습니다. 주요 의도는 자아 발견과 성장입니다. 주인공의 여정을 통해 독자에게 성장의 과정을 보여주며, 정체성을 찾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변화는 때때로 두렵지만, 그것이 가져오는 가능성과 희망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죽음

- 팀 보올러 「리버 보이」 (리커버 특별판), 다산책방 2024.을 읽고 쓴 서평

김시호/신흥중 3학년 3반

우리는 가끔 소중한 사람의 죽음을 생각해 보곤 한다, 이 책에선 죽음에 관해 이야기한다. 내가 생각한 죽음이란, 허망하고 슬프고 그런 감정들이었다, 이 책에선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준다.

마지막 여행

이 책은 수영과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소녀 제시와 죽음을 앞둔 할아버지의 마지막 여행에 관한 이야기이다. 죽음을 앞둔 할아버지는 남은 여생을 병원에서 보내는 것이 아닌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같이 보내기로 한다.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소녀 제시는 할아버지의 의견을 존중한다. 여행을 간 장소에서 일어나는 믿지 못할 이야기 산속에서 만난 정체불명의 소년 그 소년과 할아버지와 소녀의 이야기가 이 책의 이야기이다.

이별의 크기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죽음에 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나도 어릴 적에 할아버지와 이별을 겪어보았다, 하지만 그때는 초등학교 3학년이란 어린 나이여서 죽음에 관해 깊게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젠 나도 엄청나게 어리진 않아서 가끔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뭔가 기분이 짹짹하다, 평생을 함께한 부모님이 사라지면 너무 외로울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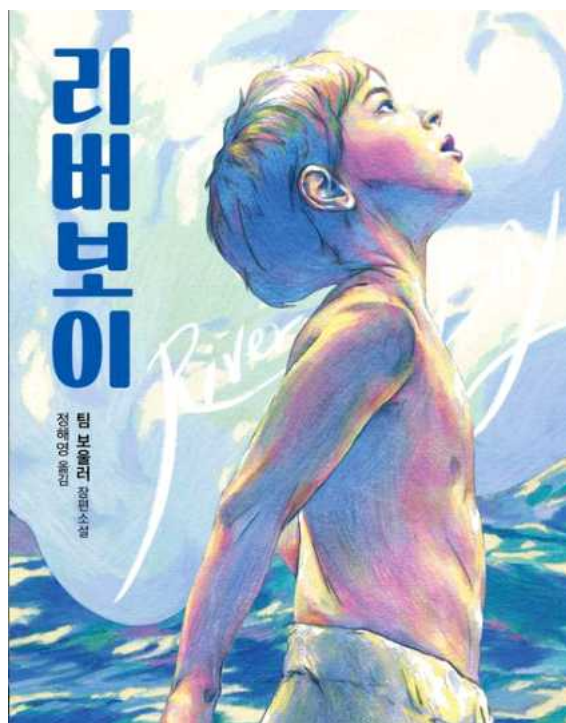
의미 없진 않은 이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장면에서 내가 생각한 죽음과는 다른 느낌을 받았다, 내가 생각한 죽음은 남은 사람들에게 슬픔 밖에 주지 못하는 것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책에선 죽음을 오히려 남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소중한 사람은 사라지지 않고 내 마음속 안에 살아있다, 같은 희망찬 말들을 해주었다, 이제 나도 죽음을 어느 정도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마음에 남는 문장

책에서 이런 문장이 있다 “강물은 알고 있어 흘러가는 도중에 무슨 일 이 생기든 무엇을 만나든 결국엔 아름다운 바다에 닿을 것임” 이 말은 제스가 할아버지의 죽음을 앞두고 “죽음은 아름답지 않아”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리버보이가 “죽음이 아름답지 않은 게 아니라 죽어가는 과정이 아름답지 않은 거야”라고 말한다. 저는 리버보이의 말을 들으며 죽음이 아름다운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내 생각은 죽음으로 생기는 이별이 아름다운 덕분이다, 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자기 자신의 감정을 숨김없이 말한다, 그 모습이 아름답다 생각했다, 그러기 때문에 죽음은 아름답다.

책에선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남겨진 소녀 제시는 할아버지와 이별을 겪고 슬퍼하지만 끝내는 슬픔을 이겨내고 멋진 어른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소중한 사람의 죽음에 무너질듯한 슬픔을 겪는다, 나 또한 그런 슬픔을 겪는 어른을 보았다, 하지만 결국엔 그분들은 다시 일어나셨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승에 있을 때 자신이 보여준 모습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평생 같이 살아간다 생각한다. 그러니 당신도 (리버보이)를 읽고 나와 같은 마음을 느껴 보았으면 좋겠다.



그리움의 강을 따라

-팀 보올러 「리버 보이」(리커버 특별판), 다산책방 2024.을 읽고 쓴 서평

최민건/신흥중 3학년 3반

책 「리버보이」는 죽음에 대해 깊게 다루는 책이다. 이 책은 독자에게 죽음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도록 만든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죽음을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았지만, 리버보이를 읽고 다시 생각해 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했다.

눈물의 의미

리버보이에서는 작품 중후반부 이런 대사가 나온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네 아버지에게 귀를 대라 하더구나. 아주 짧은 말이었어. 그런데 네 아빠가 눈물을 흘리더구나.”라는 말인데, 이때 우리 아빠가 내가 어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에서 하염없이 우시던 게 떠올랐다. 우리는 여러 종류의 눈물을 흘린다. 하지만 누군가를 위해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했고 아꼈는지 알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나도 가끔 부모님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인생과 강의 흐름

"리버보이"에서 제스는 리버보이와 강에서 죽음과 강에 관해 이야기한다. 강은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결국 아름다운 바다에 도달할 것이라는 말을 한다. 이 말은 인생의 여정에서 마주치는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긍정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믿음을 상징한다. 강은 흘러가며 많은 일을 겪지만, 결국엔 끝내 바다에 도착하며 목표를 이룬다. 우리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일을 겪는다.

그리움이 만드는 새로운 시작

"나에게만 들리는 별빛 칸타빌레"와 "리버보이"는 모두 죽음이라는 주제를 통해 인물들이 겪는 깊은 변화를 그려낸다. 두 작품 모두 사랑하는 이를 잃은 주인공들이 그 상실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다. 하지만 별빛 칸타빌레에서는 죽음을 부정적으로 그린다. 루크는 아버지와의 이별로 인해 루크를 나쁜 길로 이끈다. 반면 리버보이에서는 죽음을 긍정적으로 그린다. 할아버지와의 이별을 통해 제스는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며 내면의 성장을 이루게 된다.

두 작품 모두 죽음을 단순히 끝이 아닌, 삶의 변화를 이끄는 계기로 바라본다. 이별

과 상실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통해 인물들은 자신의 내면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 죽음은 그들을 치유할 기회를 제공하고, 사랑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삶의 끝과 강의 끝

리버보이에서는 인생을 강에 은유해 표현한다. 강의 흐름은 강의 끝인 바다에 닿을 때까지 어떤 일이 생기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흐른다. 리버보이에서 강은 우리의 삶을 표현하고 강의 끝, 즉 바다는 우리의 죽음을 표현한다. 리버보이에서 강은 단순한 물줄기가 아닌, 삶의 여정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다. 강은 끊임없이 흐르며, 그 안에는 기쁨과 슬픔, 사랑과 상실이 얽혀 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역시 다양한 경험과 감정의 흐름으로 가득 차 있다. 강이 바다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흐르듯, 우리는 삶의 여러 단계와 사건들을 지나면서 결국 하나의 목적지, 즉 죽음에 이르게 된다.

끝으로

우리는 많은 감정을 내면에 품어놓고 산다. 마치 바다처럼. 바다는 내면에 많은 것을 품고 있다. 우리는 힘들거나 우울할 때 남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곤 한다. 바다 또한 문제가 생기면 겉으로 드러내곤 한다. 바다는 그 깊이와 넓이만큼이나 수많은 감정을 담고 있다. 겉으로 보이는 잔잔한 수면 아래에는 때때로 격렬한 파도가 치고,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 우리의 내면도 이와 다르지 않다. 외부에서 보이는 모습은 평온해 보일지라도, 각자의 마음속에는 기쁨, 슬픔, 불안, 그리움 같은 다양한 감정들이 얽혀 있다. 결국, 우리의 내면은 바다와 같이 다양한 감정을 품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성장을 이룰 수 있다. 바다의 깊이를 탐험하듯,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감정을 이해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여정은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 준다.



봄편한 여름 편한 겨울

김호연 장편소설

always

한국을 넘어 세계를 사로잡은 K-힐링소설의 대표작
오직 독자의 선택과 입소문이 만든 경이로운 밀리언셀러

★★★★★
 주요 서점 80주 연속
 종합 베스트 Top 10

★★★★★
 전세계 18개국
 판권 수출

★★★★★
 전국 37개 도시
 올해의 책

★★★★★
 2022 공공도서관
 최다 대출 도서

도움에 불필요한 것 없다

-김호연 『불편한 편의점』. 나무옆의자 2021.을 읽고 쓴 서평

윤지훈 / 신흥중 3학년 1반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이 책은 노숙자인 한사람이 바꿔놓은 여러 사람에게 인생을 보여주고 사람에게 도움 그리고 소중함과 따뜻함을 보여주는 책이다.

불편한 친절함

불편한 편의점을 보았을 때 진상들이 난무하는 그런 편의점 얘기를 하는 내용에 책임 줄 알았다. 그런데 불편한 편의점을 읽었을 때 그런 것과는 좀 색다른 책임 것 같았다. 책에서는 노숙자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사는 곳이 나쁘기만 한 곳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노숙자가 김 여사라는 등장인물에 지갑을 발견해 주어 김 여사에게 찾아주었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도시락을 사주었을 때 이 모습을 보고 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내가 도움을 받으면 그의 맞는 보답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불필요한 친절은 없다

이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베푸는 친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 주고 싶은 것 같다. 내가 보았던 내용에서는 노숙자인 독고 라는 등장인물이 김 여사를 도와주어 김 여사라는 등장인물은 노숙자인 독고에게 자기 자신이 하는 편의점에 데려와 월급을 가불 해주어 옷과 자그마한 단칸방을 구해주었다. 이러듯이 친절을 베풀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중용한 부분을 담고 있다.

공감과 배려의 가치

이 불편한 편의점 속 편의점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맞이하는 공간이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나 힘든 상황에 부딪친 사람들도 편의점에서 작은 배려와 공감을 받으면서 일상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특히 김 여사라는 등장인물이 노숙자에게 기회를 주는 장면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이 중요한 가치임을 느꼈다.

작은 배려가 만드는 큰 변화

편의점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작은 배려와 따뜻함이 등장인물들의 삶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킨다. 이 책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의 관심과 배려를 건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불편한 편의점 속에서 주인공이 노숙자에게 일자리를 주며 서로 돕고 의지하는 모습은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게 만든다.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것 같다.

이 책을 읽고 우리 삶은 얼마나 많은 도움과 배려, 친절을 받으며 또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었고 이러한 도움으로 내 삶은 얼마나 바뀌게 되었으며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 사람에게 어떠한 도움으로 인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소통의 필요성

-김호연 『불편한 편의점』. 나무 옆 의자 2021.을 읽고 쓴 서평

박서준/신흥중 3학년 1반

사회에서 편의점은 자주 사용된다. 학생들과 성인들 각각의 이유에서 편의점은 어느 나라든 많이 사용되는 장소이다. 하지만 이 장소에서는 아는 사람이 아닌 이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묵묵한 침묵만 이루어질 뿐이다. 그런데 『불편한 편의점』에서는 알코올성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어버린 독고 씨가 always의 아르바이트생이 되며 새로운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타인의 고민을 이해해 나가며 이 과정에서 소통의 중요성과 소통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책이다.

소통의 중요성

우리가 아는 편의점은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고파는 장소이지만 이 책 『불편한 편의점』에서는 물건을 사고파는 곳만이 아니라 많은 등장인물이 지나가며 다양한 이야기를 하며 등장인물들의 고민을 알아가며 독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작은 위로를 건넨다. 이는 소통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데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소통이 없으면 해결됐을까?

편의점에는 많은 사람이 오고 간다. 『불편한 편의점』에서는 독고 씨가 여러 등장인물과 진심 어린 소통을 하며 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 현실사회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이 핸드폰에 집중하고 손님과의 대화를 소홀히 할 때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만약 현실사회처럼 독고 씨가 관심과 배려, 친절, 진심 어린 조언이 없었다면 등장인물들의 고민도 해결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아픔을 나누는 장소

독고 씨는 다양한 손님들과 소통을 통해 여러 사람의 걱정, 아픔을 이해하고 알아간다. “모든 사람의 사연은 다르지만, 그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문장은 이 『불편한 편의점』에서 핵심 내용 인 것 같다. 여러 배경의 등장인물들이 편의점에서 소통을 통해 서로의 아픔을 알며 서로 이해해주며 그 안에서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을 발전할 수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소통을 통한 변화

『불편한 편의점』과 비슷한 내용인 『82년생 김지영』은 일상에서 여러 차별과 압박을 경험하고 자신이 느끼는 고통을 주변과 소통하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쳐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가족들과 소통을 하지 못하여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남편과의 대화를 통하여 서로의 이해가 깊어지고 갈등이 완화되는 과정을 그린다. 나중에는 김지영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히 털어놓으면서 남편은 그녀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고, 둘은 소통을 통해 서로를 더욱 지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김지영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우고 주변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사회적 고충을 함께 나누는 방식을 찾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통은 삶을 변화시키고 서로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준다.

『불편한 편의점』은 현대사회에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알 수 있는 책이었다. 편의점이라는 익숙한 공간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고, 소통을 통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며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소통을 통해 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적 편견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김호연 「불편한 편의점」, 나무옆의자를 읽고 2024년 10월 1일 쓴 서평

김유환 / 신흥중 3학년 1반

"불편한 편의점"은 단순한 소설을 넘어, 우리 사회의 깊은 문제들을 조명하는 작품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는 "불편한 편의점"에선 다양한 인물들이 겪는 사회적 불평등과 그로 인한 고통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이를 통해 독자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차별의 모습과 그로 인한 영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편의점에서 일어난 차별

작중 노숙자였던 "독고"는 염 여사의 잃어버린 지갑을 다른 노숙자들로부터 구타를 당하면서 까지 지켜내며 염 여사의 마음에 들었다. 때마침 야간 알바가 필요했던 염여사는 마음씨가 좋은 "독고"를 야간 알바로 채용시킨다. 야간 알바를 하며 손님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알코올 중독으로 잃어버린 본인의 기억을 되찾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내용이다.

"어제는 좀 늦길래 어디 아픈가 걱정이 다 되더라고요" 시현은 앞서 염 여사에게 싫은 티를 내지만 노숙자가 늦자 걱정해주는 모습으로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한번 안 보이면 걱정하게 된다는 의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편견, 한 곳 차이로 보는 눈이 달라진다.

이 책의 내용은 "고딩엄빠"라는 프로그램과 비슷하다. 이 책도 노숙자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지만 내면은 달랐고, 고딩엄빠도 마찬가지로 어린 나이에 사고 쳐 아이가 불쌍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보니 책임감을 느끼고 산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둘 다 겉모습만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내면을 보여주는 것이 비슷하다.

나 또한 편견이 있던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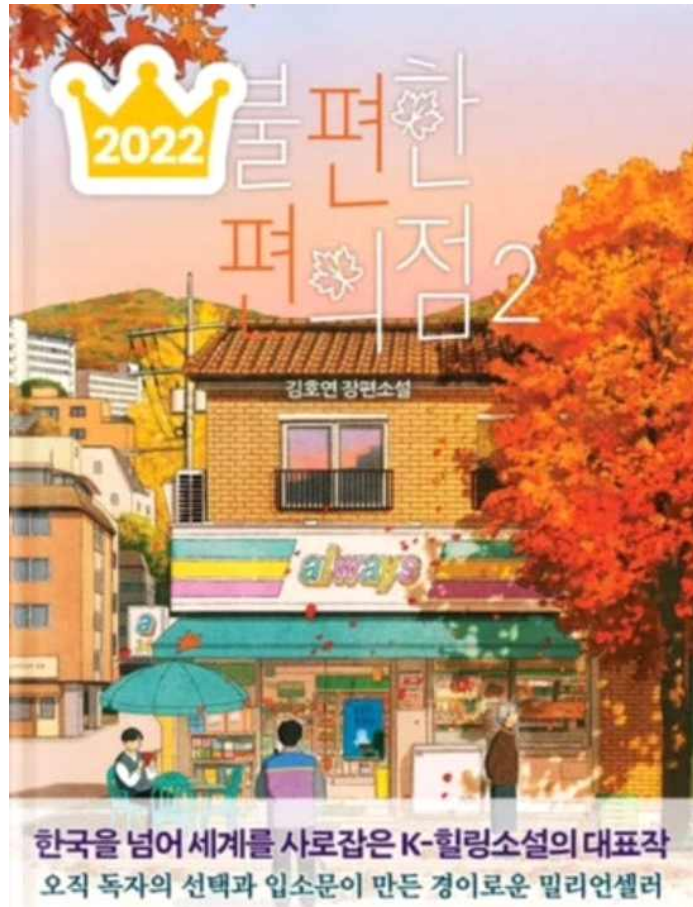
나 또한 차별했던 적이 있다.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 내 스마트폰을 찾아준 사람의 말투를 보고 흔히 말하는 양아치에게 걸린 것 인가, 아님 사례금이란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게 아닌가, 걱정이라는 핑계로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 스마트폰을 찾아준 사람은 내 생각과 매우 다르게 아주 착한 사람이었다. 이렇듯 나 또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책을 읽고 생

각이 달라졌다.

사회의 악, 차별과 편견

나는 차별과 편견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다 같은 취급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어째서 차별이 생기는가 차별과 편견 때문에 많은 일이 생긴다. 범죄자와 닮았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사람, 가난하면 더러울 거라는 편견 등, 많은 차별과 편견이 생긴다. 이런 일을 당해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으며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다. 그러므로 사회가 평화로워지려면 차별과 편견이 없어야 한다.

이로써 "불편한 편의점"은 우리 사회의 차별과 편견을 날카롭게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작품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불평등의 현실을 다시금 마주하게 된다.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차별과 편견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다. "불편한 편의점"은 단순한 소설을 넘어, 우리가 모두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는 중요한 작품이다.



삶에서 중요한 요소

-김호연, 『불편한 편의점』, 나무 옆 의자 2021을 읽고 쓴 서평.-

편성재 / 신흥중 3학년 2반

우리는 행복을 얻으려고 살아간다. 사람들은 삶에서 중요한 것은 돈, 건강, 가족들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에 관한 책이다. 책에 나오는 여러 등장인물이 삶에서 소중한 요소를 깨닫는 내용이다.

불편한 편의점과의 첫 만남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의 제목을 처음 보았을 때, 이 책의 제목이 왜 불편한 편의점인지 궁금했다. 나는 「불편한 편의점」이 단순히 진상들과 관련된 불편한 내용이 담겨 있을 거로 생각했다. 책의 뒷표지에 있는 글을 읽어보니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을 것 같았다. 내가 이 책을 읽은 후에는 내가 책의 뒷표지를 보고 느꼈던 것처럼 불편한 편의점이란 책이 나에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고, 그리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들과 내가 나의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친절을 통해 얻는 행복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한 문장이 나온다. 밥 딜런의 외할머니가 말했다.

“행복은 뭔가 얻으려고 가는 길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는 길 자체가 행복이라고, 그리고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힘든 싸움을 하고 있어서 친절해야 한다고” 이 문장에서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힘든 싸움을 하고 있어서 친절해야 한다고)라는 부분이 특히 인상 깊었다. 책에서 독고는 염영숙 여사의 파우치를 줌고 찾아준다. 염영숙 여사는 보답으로 매일 도시락을 먹게 해주었고, 술을 끊는 조건으로 독고를 야간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한다. 책에 시현이라는 아르바이트생이 나온다. 시현의 앞에 처음 등장한 독고는 시현에게 약간 의문스러운 존재였다. 시현은 사장님이 왜 독고한테 친절을 베푸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시현은 독고에게 아르바이트 방법을 알려 주며 그를 통해 누군가를 돕는 일이 보람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나는 시현이 독고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행복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시현은 독고 덕분에 다른 편의점에서 점장을 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친절을 베푸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행복한 것인지 느끼게 되었다.

나눔을 통해 얻은 행복

독고는 기억을 잃기 전 의사였는데 그는 가족에게 따듯한 사람도 아니었다. 그가 상담을 맡았던 한 여대생을 다른 사람이 대리로 집도하여 수술하다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가족들도 일을 알게 되어 독고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노숙자 신세로 전락 되어버린 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결국 삶은 관계였고 관계는 소통이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내 옆의 사람들과 나누는 데 있음을 이제 깨달았다고 한다. 독고는 후에 대구로 가족을 찾으러 간다. 내가 텔레비전에서 본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에서 독고와 비슷한 사람이 나온다.

디어 마이 프렌즈에 나오는 김석균은 작중 아파트 경비로써 열심히 일하지만, 정아(아내)에게 인격적인 모욕은 물론 가계부 검사에 각종 심부름과 궂은일을 시킨다. 결국 정아는 석균을 떠나게 되고 석균은 후회하게 된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백한다. 후에 두 사람의 관계는 그럭저럭 회복한 듯 보인다. 김석균도 독고처럼 행복은 내 옆의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라고 느꼈을 거로 생각한다. 나도 내 옆의 사람들과 행복을 나누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소통의 중요성

「불편한 편의점」은 책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오선숙은 아들이 독립영화를 만드는 것에 반대하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독고와 대화하면서 아들에 대한 조언을 받고 삼각 김밥과 편지를 건넨다. 이를 통해 나는 가족관의 소통과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고 「불편한 편의점」에서 염영숙 여사는 직원들과 손님들에게 정 많은 언니 같은 존재이다. 그녀는 독고에게 알바 기회를 주고, 그녀는 자신의 편의점을 아들 민식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광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행복과 관심, 배려를 보이고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 깨달았다.

‘결국, 삶은 관계였고 소통이었으며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내 옆의 사람들과 나누는 데 있음을, 이라는 문장이 생각난다. 이 책을 읽기 전 나 자신에게 삶에서 중요한 요소는 무엇 이냐고 물으면 건강, 돈, 가족 등등을 말할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삶에서 중요한 요소가 무엇 이냐고 물으면 소통을 통한 행복이라 말할 것이다. 소통은 우리의 삶과 가깝게 있다. 우리는 소통을 통해 행복을 얻는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주위 사람들과 소통하며 행복을 서로 나누어 지내고 있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서로를 돕는 것으로 우리는 일어섭니다.

-김호연, 『불편한 편의점』, 나무 옆 의자 2021을 읽고 쓴 서평.

황예준 / 신흥중 3학년 2반

노숙자였던 독고 씨가 편의점 사장인 염 여사의 파우치를 돌려주면서 편의점 알바생이 된다. 독고 씨가 알코올성 치매로 기억을 잃어버렸는데 상처가 있던 사람들이 독고 씨가 알바하던 always 편의점에 오면서 그들을 도와주며 기억을 찾는 내용이다. 이 책은 소통과 친절에 관한 내용이다.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따뜻함이 있는 책이다. 그리고 이 책에서 “속상할 땐 옥수수 수염차가 좋아요” 이 문장이 기억에 남는다. 알코올 중독을 끊기 위해 독고 씨가 먹었던 음료이기도 하고 경만 씨가 알코올 중독이었을 때 그를 위해 독고 씨가 주었던 음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인물들이 속상하거나 슬플 때 이 음료를 먹기에 기억이 난다.

불편한 편의점

불편한 편의점을 처음 보았을 때 왜 불편한 편의점인지 생각을 해봤다. 종류가 많지 않거나 진상이 많아서 종류를 늘리고 진상들을 없애는 내용인 줄 알았다. 읽어보니 진상이나 물건의 종류가 없다는 것이 있었다. 하지만 이 책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다. 불편한 편의점에 오는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온다. 이 편의점의 알바생인 독고 씨는 원래 기억을 잃은 노숙자였고 오 여사는 아들 때문에 힘들어한다. 경만 씨는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느낌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독고 씨는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며 이 사람들을 위로해주며 독고 씨는 기억을 찾게 되는 내용이었다. 이 책을 보면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다.

편견

사람들은 다 모두 자기만의 편견이 있을 것이다. 노숙자에게 편견이 대부분은 있을 것이다. 생각으로 안 하고 있지만, 노숙자들을 보면 한심하게 생각한다면 그들이랑 접촉하기 싫어서 그들을 피하는 것과 같이 그들을 보는 시선은 별로 달갑지 않을 것이다. 나도 이 책을 보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 노숙자였던 독고 씨가 파우치를 찾아주는 장면은 놀라울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노숙자이면 돈이 없기

에 돈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훔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독고 씨는 다른 노숙자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 몸으로 막는 장면은 나에게 대한 편견의 벽을 허무는 것 같았다. 알바생이 된 독고 씨를 시현이는 꺼렸다. 일도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편견이 있었지만 독고 씨는 알바 시간이 아니어도 열심히 일하였다. 이런 독고 씨가 자신이 노숙자라고 무시했던 오 여사뿐만 아니라 다른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도 위로와 해결책을 내주는 장면은 나를 반성하게 했다. 나는 이 책을 보며 노숙자에 대한 편견이 줄었고 노숙자라고 일자리가 없거나 사회에서 무시하지 말고 노숙자에 대한 편견이 줄고 그들을 위해 다른 일자리들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소통

우리는 편견으로 인해 이 사람과는 소통하기 싫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것이다. 독고 씨도 노숙자였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꺼리기도 했다. 근데 소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소통의 부재로 인해 서로 오해가 쌓이다 보면 서로의 신뢰와 이해가 사라지기에 신뢰하고 이해하기 위해 소통은 아주 중요한 키라고 생각한다. 불편한 편의점도 소통과 관련된 책이다. 이 책 내용에서 과거에 성형외과 의사였던 독고 씨가 고스트 의사를 사용하다가 여성이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던 그의 과거가 충격적이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가족들에게 들켰지만, 소통하지 않고 회피하다가 가족들과 이별 당한 것이 안타까웠다. 그리고 경만 씨는 회사에 의한 스트레스와 가장의 책임감으로 알코올 중독되었다. 하지만 독고 씨가 그와 소통을 하며 알코올 중독을 끊게 했다. 독고 씨가 노숙자라고 말을 잘 걸지 않았던 오 여사도 그가 소통을 해주면서 그에게 마음을 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소통은 편견을 없애주거나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다.

이 책을 보며 이 명언은 기억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행복은 뭔가 얻으려고 가는 길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길 자체가 행복이라고, 그리고 네가 만나는 사람이 모두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고”이 명언을 보며 행복은 목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목표를 위해 걸어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 더 단단해지고 실패를 해도 굴하지 않고 나아가는 힘들어 생긴다고 생각하거나 혼자만 이런 과정을 겪는 게 아니라 모두 이런 과정들을 밟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불편한 편의점에서 나오는 등장인물들도 이런 과정을 하는 중이고 그들은 서로를 도우며 그 힘들면서도 행복이 있는 그런 과정들을 서로 도우며 해결하기에 이 명언을 기억해두고 내 주위에도 이런 힘든 과정을 하는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기에 서로를 돕는 것은 어떨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필요한 것들

-김호연, 『불편한 편의점』, 나무 옆 의자 2021을 읽고 쓴 서평.-

윤지섭/신흥중 3학년 2반

내가 읽은 책은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이다. 이 책은 기억을 잃고 노숙 생활을 하며 삶을 잃어버린 독고 씨가 편의점 알바를 하게 되며 생기는 일을 그리는 책이다. 내가 처음 이 책을 봤을 때 제목이 불편한 편의점이라 무슨

내용일까 궁금하기도 했고 유치한 책일 것이라고도 생각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책이 내가 생각한 것처럼 가벼운 주제를 다룬다고 느껴지지 않고 중요하고 큰 뜻을 담고 있다고 느꼈다

인상 깊게 읽은 점

내가 이 책을 읽으며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은 독고 씨가 편의점에 오는 손님들의 힘든 점을 들어주고 도와주며 해결하는 모습이다. 독고 씨도 아픈 상처가 있고 서울역에서 노숙하며 지내지만 서로 힘든 점을 들어주고 해결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다. 그리고 책에서 독고 씨는 의료사고로 인해 딸과 아내와 헤어지게 되고 찾던 와중 서울역에서 기억을 잃고 노숙 생활을 하게 되며 삶을 포기한다. 하지만 다시 일하고 사회로 나가 사람들과 만나며 기억을 되찾는 모습도 인상 깊었다.

이 책에 나오는 등장인물 한명 한명 모두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을 공유하고 나누며 치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로써 서로 고통을 나누는 것이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준다. 그리고 이 책에서 현대사회에서의 고독함과 외로움을 나타내고 있고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배운 점

나는 독고 씨의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보고 배워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서로 도우며 이끌어주기보다는 어려서부터 경쟁하며 개인주의의 성향을 지니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중요한 것은 서로를 비난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삶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 책은 우리가 함께 나아가며 필요한 것들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경쟁에 회의를 느껴 삶을 포기하는 젊은 사람도 많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독고 씨를 보고 배울 점이 있는 것 같다. 우리의 삶에서 경쟁이라는 것은 없을 수 없지만, 함께 고통을 나누고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느 한 노숙자로부터 시작된 이야기

-김호연, 『불편한 편의점』, 나무 옆 의자 2021을 읽고 쓴 서평.

김윤서/신흥중 3학년 2반

내가 생각한 노숙자

나는 책을 읽으면서 이 노숙자가 무슨 피해를 주는 인물인 줄 알았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노숙자는 돈이 없어 거리에 사시는 분들을 노숙자라고 생각해 피해를 주는 인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책에 나온 노숙자는 지갑을 지키고 돌려주는 착한 노숙자였다 난 책을 읽으면서 내가 노숙자분들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가지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내 친구와 닮은 시현

책 내용에서 편의점에 알바하고 있는 시현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 시현이라는 사람은 의리가 있거나 무엇을 잘 챙기는 사람이 아니다 한마디로 약간 귀찮아하는 스타일이다. 내 친구도 딱 시현이라는 사람랑 똑같은 거 같다 의리도 없고 뭘 잘 챙기는 사람도 아니고 귀찮아만 하지만 무슨 부탁이나 무엇을 시키면 잘한다. 그래서 책을 보면서 내 친구랑 너무 똑같아서 더 흥미 있게 본 것 같다

내 추억

책 내용에 '앞으로 배고플 때 우리 편의점으로 와서 도시락 먹고 가요'라는 내용이 있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내 어린 시절 추억? 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콜라를 먹고 싶어 동전을 가지고 집 앞 슈퍼에 가 콜라를 사 먹곤 했다 그 당시 나이가 어려 돈도 없고 하고 부모님도 두 분 다 일을 나가서 슈퍼 앞에서 콜라를 쳐다보고 있던 적이 많았다 거의 1주일에 4~5번 그러니깐 사장님이 콜라를 들고 나한테 와 귀엽다고 하시면서 콜라를 주신 적이 몇 번 있었다. 그리고 가끔 심부름으로 슈퍼에 가서 뭘 사서 갈 때면 가끔 콜라를 서비스로 주시곤 했다. 그래서 저 내용을 읽고 추억이 돌아왔다.

폐기된 음식

'알바들 폐기된 거 먹어요. 아주 최고예요' 책 내용 독고(노숙자) 씨가 말한 말이다. 난 이 말을 읽고 독고 씨는 왜 폐기된 음식을 좋아하고 왜 좋아하게 된 거고 왜 새것을 준다고 해도 거절한 건지 생각을 했다 생각을 하다 보니 폐기된 음식은 다시는 판매가 안 돼 못 팔아 공짜가 되는 거고 독고 씨는 노숙자고 무료여서 먹는 건가? 라고 생각했다. 근데 또 생각하니 새것을 거절했다 지금도 왜 독고 씨가 폐기된 음식을 좋아했는지 감이 안 잡힌다.

경청의 힘

-김호연, 『불편한 편의점』, 나무 옆 의자 2021을 읽고 쓴 서평.

박유준/신흥중 3학년 2반

이 책은 기억을 잃은 노숙자가 편의점 알바를 하며 고민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자신의 기억을 되찾는 내용이 담긴 책이다.

독고의 첫인상

이 책을 읽기 전 노숙자 역할이 책에 나온다길래 내용이 별로인 책인 줄만 알았다. 책을 읽기 전 “굳이 사회에 많은 역할을 두고 하필 노숙자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노숙자가 주인공인 이유가 있었다. 독고가 나중에 고민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는 모습을 보았을 때 “독고가 노숙자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엔 노숙자라고 해서 별 볼 것 없는 역할일 줄 알았는데 그건 나만의 편견이었던 것 같다.

불편함을 해결하는 힘

이 책에서 독고는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여러 사람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었다. 가정에 대한 문제, 직업에 대한 문제 등 정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 독고가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해 줄 수 있었던 이유는 경청이었던 것 같다. 알코올성 치매에 걸린 독고는 들어주는 것 말고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이득이 되었던 것 같다. 책의 내용 중 선숙이 자신의 고민을 말할 때 독고는 묵묵히 들어주기만 하였고 평소 하소연할 곳이 없던 선숙은 독고가 들어주는 그것만으로도 속이 풀린 것 같았다. 우리 사회에서 불편함이 생기는 이유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해서인 것 같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들어보고 경청하면 사소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 것 같다.

듣는 이유

어딘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부부가 싸움을 해결해 주는 걸 보았다. 그곳에는 여러 문제가 있었다. 남편은 아내에게 바라는 것이 너무 많고, 아내는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처음에는 “둘 다 문제가 있네. 저건 회생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 같다. 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로 만의 과거 또는 이유가 있었고 그걸 서로 모르고 있었다. 그 프로그램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강조했었던 것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었다. 나는 경청으로 인해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는 것을 보고 “경청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경청하는 법

이 책을 읽고 여러 사례를 읽으면서 내가 경청을 평소 어떻게 생각하고 잘 하고 있나 나 자신을 돌아보았던 것 같다. 과거에 나는 사소한 문제가 있을 때 남의 말을 잘 들어주기는 했던 것 같다. 하지만 그걸 토대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하려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항상 어디선가 경청, 경청 거려서 마음속에 품어 두긴 했지만 단지 ‘듣기’만 했을 뿐 그걸 대화에 넣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이 책의 작가가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경청’을 목적으로 책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경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제부터 남의 말을 듣기만 하는 ‘경청’이 아니라 그걸 원활한 대화를 위한 ‘경청’으로 바꿔보려고 노력할 것이다.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다’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있었다. 이처럼 다른 사람과 원활한 소통을 하고 불화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선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경청의 힘’을 기를 필요가 있다. 현재 그리고 미래에 내가 달라질 수도 있는 중요한 힘이다.

외면당한 사람들

-김호연, 『불편한 편의점』, 나무 옆 의자 2021을 읽고 쓴 서평.

민수윤 / 신홍중 3학년 3반

우린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 서로 차이기도 하고 힘을 합치며 집단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되죠, 이 책은 많은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따스한 마음으로 도와가며 어떤 의미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으로 얻는 가치

우린 모두 힘든 순간을 겪습니다, 이 순간을 극복하는 사람도 극복하지 못해 좌절하는 사람도 있죠. 이 책에서는 그런 힘든 사람들끼리 모여 서로를 사랑하며 극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극복 과정에서 성장하며 전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하게 되죠.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것은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의 사연은 다 다르지만,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감정에 얽혀 사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사람 역시 다른 인물들로부터 치유됐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상처받았다고 혼자 아파하거나 다른 것으로 애쓰는 것보단 내 주위 사람과 함께 헤쳐나가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잊혀진 영웅

여러분은 날 버려가면서 희생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불편한 편의점』에 나오는 인물 중 흥신소 광 씨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노후가 준비가 안 되어서 흥신소를 하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광 씨가 흥신소 일을 하고 싶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광 씨가 이렇게 된 이유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광 씨는 원래 경찰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만으로는 운동하는 딸과 예술고에 진학해야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경찰 일로만은 아들의 뒷바라지하기 힘들었죠. 그래서 광 씨는 경찰 일을 하지 못하고 흥신소를 차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에 아들딸은 광 씨를 외면하게 되었고 아내와는 이혼하게 됩니다. 광 씨는 자신을 버려가면서까지 자신의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모두를 했지만 결국은 가족은 그를 외면하고 노후가 준비 안 된 독거노인이 된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이 참전용사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참전용사분들 역시 나라를 위해 온 마음을 바쳐 헌신했지만 나라는 그들에게 마땅한 보상을 하지 않고 있죠. 가족을 위해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다 했지만 외면당한 광 씨, 나라를 위해 희생했지만 잃은 그것밖에 없는 영웅들이 둘 다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게 맞는 것일까요? 광 씨는 이 책의 주인공인 독고 씨 덕분에 나름 좋은 결말이 왔다 해도 참전용사분들은 이런 대우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인, 영웅을 존중 못 하는 우리 사회는 독고 씨 같은 따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오길 기원하겠습니다.

외모, 말투 보단 행동으로 판단하자

이 책에서는 주인공인 노숙자 독고 씨가 나옵니다. 독고 씨는 원래 노숙자가 아니었지만, 모종의 사건 때문에 노숙자가 됩니다, 그는 노숙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무시당한다. 노숙자는 모두 도박 등 이런 걸로 망해 술과 도박에 찌들어서 산다는 우리의 편견과는 다른 사례였죠, 독고는 자신의 끼니 걱정도 있는데 고급 파우치를 주인에게 돌려주는 모습 그리고 남의 사연을 잘 들어주고 도와주는 따스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사회실험이 있었는데 그것은 노숙자들에게 밥도 못 먹어서 굶고 있는 소년이 자신 옆에 있으면 어떤 행동을 할지 보는 실험이었습니다.

첫 번째 실험 때 노숙자는 소년을 확인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소년에게 피자를 사주는 모습과 자신의 은신처 자리를 내주어 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의 외모, 말투보단 행동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밥도 못 먹었는데 별 어전 귀중품의 주인을 찾아주는 독고,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소년에게 밥을 사주는 노숙자 우리는 편견과 차별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놓치곤 합니다. 겉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모두 각자만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삼자가 보기에는 저게 힘든 건가? 많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느끼는 아픔의 크기는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현실을 살아가기에 바쁩니다. 그러기에 많은 것을 놓치게 되죠. 학생 때는 공부를 성인 때는 일을 그리고 노인 때는 후회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 영, 수, 사, 과, 역 등 모든 공부에 끝은 저는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모든 사건은 나아가다가 다시 원초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것처럼요. 철학은 인생에 대해 많은 관점을 줍니다. 그리고 그 관점이 인생을 더 좋게, 아니면 더 나쁘게 바꾸게 되는 것이죠. 이 책에 나오는 인물들은 대부분이 다 자기만의 행복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죠. 그렇다고 현실을 사는 우리가 맞이하는 것을 저것의 극 일부입니다. 만약 독고가 파우치를 팔았더라면? 곱 씨가 경찰 일을 열심히 했다면? 이 책의 내용은 완전 반대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픔을 머금고 살아가게 되겠죠. 이것을 보고 저는 작은 호의가 큰 호의로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윤회사상이죠. 어렸을 때부터 경쟁하며 살아나가도 또 경쟁해야 하는 이것을 우리는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작은 것에도 큰 의미를 두세요. 그럼 작은 것에도 큰 행복이 찾아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우리는 각자 다른 관점,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으로 우리는 공감도 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알기도 하죠. 우리 주위 사람들을 전보다 더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떨까?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는 두려움을 잠재운다.

-김호연, 『불편한 편의점』, 나무 옆 의자 2021을 읽고 쓴 서평.

김주영/신흥중 3학년 4반

용기는 ‘씩씩하고 굳센 기운. 또는 사물을 겁내지 아니하는 기개.’ 또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옳다고 여긴 일을 실천하는 마음’ 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용기는 인간의 필수 덕목 중의 하나이다. ‘불편한 편의점’ 은 독자들에게 용기를 주어 독자 스스로 올바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말로 불편한 편의점

우리나라의 도심에는 주로 역 주변 또는 도로변 등에 많은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편의점은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보통 24시간 문을 여는 잡화점.’ 으로 말 그대로 편리함을 개념으로 도입한 소형 소매 점포이다. 그렇지만 이 책은 제목부터 ‘불편한 편의점’ 이다. 소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편의점이 불편하다는 말이 마냥 어색하게만 느껴졌다. 이 책에서 나오는 편의점은 서울특별시 청과동 구석진 곳에 있는 푸른 언덕에 있다. 처음에는 제법 장사가 잘되었지만 얼마 안 가 100m도 안 떨어진 곳에 각각 다른 브랜드의 편의점 두 개가 더 생겼고, 그 두 곳이 미친 듯이 경쟁을 시작했다. 현재는 자연스럽게 염 여사 편의점의 매출이 줄게 되었다.

또한 노숙자였던 ‘독고’ 는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항상 저녁 여덟 시 폐기 도시락을 먹겠다고 찾아와 알바생 ‘시현’ 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들어오려던 다른 손님 또한 편의점 안에 ‘독고’ 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나간 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 편의점의 점장인 ‘염 여사’ 의 마음만큼은 따듯하다. 알바생 ‘오 여사’ 와 ‘성필 씨’ 는 이제 이 편의점이 아니면 생계를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고 다른 알바생 ‘시현’ 역시 공무원 시험에 드는 돈을 여기서 충당하고 있다. 염 여사는 이 사업장이 자기 하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직원들의 삶이 걸린 문제라는 걸 깨달은 뒤 편의점 경영에 신경을 쓰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 편의점을 ‘불편하지만 따듯한 편의점’ 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배움은 성장의 열쇠이다.

몇 달 전 뉴스에서 나는 ‘느린 학습자’ 라고 불리는 경계선 지능 청년들이 일하는 식당을 소개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다. 경계선 지능은 웨슬러 지능검사 기준 지능 점수 70~79점으로 지적장애인과 비 지적장애인 사이의 경계선으로 분류되는 상태이며, 지적장애인은 아니지만 지능 지수가 평균보다 낮다. 이들은 또래보다 정신연령이 낮고 학습 능력, 인지 능력, 이해력, 대인관계 등에서 어려움을 느낀다. 서울의 한 대학로에 있는 ‘청년 밥상 문간 슬로우점’ 의 직원 10명은 모두 경계선 지능 청년이다.

이곳에서 일하는 ‘조재현’ 씨는 “응대 매뉴얼을 외우는 게 어려웠는데 손님들이 많이 오면 뿌듯했다.” 라며 “나중에는 다른 식당에서도 일해보고 싶다.” 라고 했다. 경계선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능력에 집중하고 꾸준히 배우는 태도로 임한다면 느린 학습자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이들과 대응하는 인물은 ‘독고’ 이다. 독고는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아는 것이 없었고 일에도 소질이 없었다. 그러나 또 다른 알바생 ‘시현’ 이 독고에게 편의점에 대해 세세하게 알려 주었다. 독고는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며 끈기가 있게 노력한 결과 이 일에 대해 능숙해지게 되었다. 독고는 항상 느리지만 늘 열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느린 학습자’ 와 ‘독고’ 에게 완벽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배우려는 태도와 의지를 지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르침 또한 성장의 열쇠이다.

‘시현’ 은 초보 알바생 ‘독고’ 의 편의점 교육을 담당했다. 독고가 편의점 알바를 완벽하게 하자 독고는 시현에게 유튜브에 편의점 초보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한 교육 영상을 올리라고 제안했다. 순간 시현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어쨌든 자신이 그에게 진정한 도움을 준 거고, 자신은 그것을 자랑스러워해도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편의점 포스기 사용법 배우기’, ‘교통카드 충전 방법’ 등 여러 가지 영상을 올렸다. 머지않아 시현은 크리스마스이브를 하루 앞둔 날 시현에게 낯선 메일이 오는데 그 내용은 시현에게 다른 편의점의 점장 자리를 제안하는 내용이었다. 시현은 ‘독고’ 를 통해 누군가를 돕는 일이 보람 있다는 걸 체험했고, 자기에게 그럴 능력이 숨어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도전하기 위해서는 용기를 지녀야 한다.

‘독고’라는 등장인물은 나와 친분이 있는 래퍼 ‘WANNI’와 가장 닮았다. WANNI는 원래 미래가 유망한 야구선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공을 밟고 넘어져 발목 인대가 손상되는 불의의 부상을 입었다. 긴 재활 끝에 그는 부상에서 복귀했지만, 본인은 “야구가 너무 힘들다. 지금이 슬럼프다. 차라리 내가 좋아하는 랩을 하고 싶다.”라고 하였다. 이때의 WANNI는 마치 독고가 서울역 주변에서 노숙하는 것처럼 운동장에서 무기력하게 야구만 했었다. 결국 그는 야구를 그만두고 래퍼의 길을 걷기로 했다. 이때 그의 기분은 독고가 편의점에서 옆 여사가 준 ‘산해진미 도시락’에 있는 조그마한 어묵볶음 한 조각을 집으려 하는 인간힘을 보이며 삶의 숭고함을 보여줬을 때처럼 이런 기분을 느꼈을 것이다. WANNI가 처음 랩을 시작했을 때 주변 지인들의 질타와 비난이 쏟아졌다. 어떤 사람은 “잘하던 야구 그만두고 래퍼 하면 성공할 거 같냐?”는 식으로 비난했다. 심지어는 WANNI의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이게 했다. 그러나 그는 야구는 포기했어도 랩은 포기하지 않았다. 현재 그는 유명 래퍼들과 함께 콘서트에서 공연하고 있고 그의 서사를 소설처럼 풀어나가며 많은 노래를 발매하고 있다. 현재 그는 이 일을 즐기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있다. WANNI, 그는 참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미국의 전설적인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은 이렇게 말했다. “용기는 자신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 용기는 인간의 필수 덕목 중 하나이다. 세상과 인간을 알면 알수록, 지식과 지혜를 쌓으면 쌓을수록,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는 순간이 온다. 그러나 우리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나 자신이 되려면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는다. 용기 있는 자가 꿈꾸던 삶을 살 기회를 얻는다.

남을 위한 일

-김호연, 『불편한 편의점』, 나무 옆 의자 2021을 읽고 쓴 서평.

김현준/ 신흥중학교 3학년 4반

노숙자에 대한 시선

<불편한 편의점>의 제목을 처음 보고 의아했다. 편의점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있기에 불편함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을 보고 흥미가 생겼다. 그래서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이 책에 내용은 노숙자 독고 씨가 염 여사의 파우치를 주워주고 염 여사가 그런 독고 씨를 보고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켜준다. 편의점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며 그들의 내면에 숨겨진 아픔들을 공유한다. 편의점은 그런 사람들에게 휴식처가 되어주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

이 책을 읽고 노숙자들에 대한 시선과 생각이 바뀌었다. 원래는 노숙자들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열심히 살지 않으면 저렇게 되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책을 보고 나서는 노숙자들이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 뭔가 가슴 아픈 사연으로 인해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좀 안쓰럽고 힘내서 다시 잘살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노숙자라고 좀 무시하고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본 것을 반성해야겠다고 생각한다.

불편한 이야기

<불편한 편의점>은 바쁜 일상을 살아가며 힘들어하는 현대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책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 책을 읽고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독고 씨가 오 여사의 아들 이야기를 듣고 조언해주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 오 여사의 아들은 학생 시절에 공부를 잘해서 대기업에 취직하였다. 하지만 아들은 회사를 그만두고 오 여사와 다투게 되었다. 그리고 독고 씨에게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고 깨달았다. 독고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 것처럼 누군가가 자신의 속사정 이야기를 들어주면 풀린다는 것을.

내가 이 내용이 인상 깊었던 이유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씩은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책에서처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상 깊었다.

가장 작은 도움 ‘관심’

이 책에서는 사람에게 관심을 주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나타내고 있다. 책에서 독고 씨는 여러 사람에게 관심을 주어서 그 사람들에게 인생이 조금씩 바뀐다. 편의점 알바를 하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시현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주는 것을 보고 유튜브를 시작해보라고 조언한다. 그렇게 시작한 편의점 알바를 위한 영상을 찍기 시작하는데 점점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한다. 그렇게 결국 다른 편의점의 점장으로 스카우트까지 받게 된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정말 작은 관심을 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도 앞으로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배려하는 마음

<불편한 편의점>을 읽으면서 이 책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배려하는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 책에서는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모두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 그중에서 염 여사는 자신은 연금 나오는 걸로 먹고 살 수 있다고 편의점에 매출이 잘 나오지 않아도 괜찮다며 말해준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잘되기를 바란다. 원래 이곳에서 일하던 시현이 다른 곳으로 스카우트 되었을 때도 좀 모진 소리여도 시현이 미안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안심시켜준다.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 것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위에서 염 여사 처지에서는 달갑지 않은 소식에도 끝까지 시현을 배려하기는 더욱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항상 품고 살아가서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요새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이 책을 통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면 한다.

불편한 편의점을 읽고

오유근 / 신흥중 3학년 4반

우리는 저마다 고민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도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겪고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사건들과 등장인물들의 삶과 고민 들을 해결해나가는 책이다.

책 이름이 왜 “불편한 편의점” 일까?

편의점이라는 이름도 편의(Convenience)점인데 왜 불편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 제목에서의 불편함은 단순히 편의점의 환경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여드는 사람들의 내면적, 사회적 불편함을 반영한 것이다. 편의점의 손님들은 대부분 동네 주민이기에 속내를 자주 얘기한다. 실직, 경제적 어려움, 가족 문제, 또는 외로움으로 인해 삶에서 불편한 부분을 편의점이라는 곳에서 잠시나마 위로받고 변화해가는 과정을 책에서 보여준다.

전하고 싶은 말

곽 씨와 독고의 대화에서 가족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에 독고가 "손님에게 하듯 하세요."라는 말이 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손님, 상사, 동료들 뿐만이 아니고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하고 맞이한다. 가족은 남들보다 더 특별한 존재가 그렇다고 해서 뭐든지 주고받을 수 있다고 여긴다면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에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마음 상하지 않도록 고려하고 노력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들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상처를 주거나 비판하면 안 된다. 나 자신을 가장 중요한 손님이라고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

"세상이 원래 그래, 사는 건 불편한 거야"라는 말도 있다. 불편한 것들이 많다는 건 어떻게 보면 세상을 온전히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불편함을 조금씩 없애 나가는 게 사는 것이고 행복이 아닐까, 우리가 편해지려고 편의점에 가 물건을 사는 것도 결국은 편의점 알바생의 불편함에서 오는 것이다. 하지만 나 혼자만 편하게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산다면 남한테 피해를 주는 삶을 살아야 하고, 편한 삶만 살다 보면 발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조금 더 불편하고 조금 더 힘들게 살아야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고 더욱 값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다.

"행복은 얻으려고 가는 게 아니다. 가는 길이 행복이다."라는 말도 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행복이라는 것을 모르는 채 무작정 행복을 향해 가는 것보다는 스스로 가는 길에 행복을 느끼고 사는 것과 무엇이든 천천히 하나하나 해나가는 그 과정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글쓴이의 의도를 보다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은 현대사회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과 갈등을 편의점이라는 공간에서 그 점을 표현한 것이 오히려 더 책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았다.

책을 읽고 느낀 감정

평소에 책을 잘 읽지 않는 나지만 이렇게 집중하며 읽은 것이 신기할 따름이었다. 이해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았고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다뤄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같았던 현장감과 각 캐릭터마다 심리표현 등 지루할 틈이 없어 한 번에 책을 다 읽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책을 읽을 때마다 김호연 작가의 문학적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다. 특히 아주라는 말이 마음에 들었다. 나처럼 책을 많이 안 읽어본 사람들에게는 읽기가 정말 안성맞춤인 책인 것 같다. 뜬금없을 수 있지만, 책을 보다 보면서 계속해서 느낀 점이 있었는데 나도 편의점 알바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불편한 편의점을 읽고

김장환 / 신흥중 3학년 4반

불편한 편의점은 나에게 따스함을 느끼게 해주었다.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 기대면서 그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모습이 신흥중 야구부인 나의 일상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약 1년 전 형들이 시즌 아웃을 하고 내가 이제 막 최고선임이 되었을 때다. 선배라는 부담감과 압박감, 그로 인한 슬럼프 등이 찾아와 야구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다. 감독님께도 말씀드리고 그만하려고 했었다.

다시 생각해보라는 감독님의 말씀도 듣고 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야구를 다시 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마음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감독님의 말씀도 없지는 않겠지만, 나와 고민을 나누었던 친구들이다. 친구들은 감독님이나 선생님처럼 위에서 내려다보는 관점이 아닌 나와 같은 눈높이에서 나를 바라봐주고 있었다. 불편한 편의점에서도 위에서 내려다보는 게 아닌 모두 같은 눈높이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말 따스웠다.

아몬드

— 손원평 장편소설 —



★★★★★
전세계
30개국
출간

★★★★★
국내 100만부
판매
베스트셀러

★★★★★
美 아마존
베스트북
선정

★★★★★
일본
서점대상
수상

★★★★★
특별부록
외전 단편
수록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소년의 성장

손원평, 『아몬드』, 다들링. 2023.을 읽고 쓴 서평

안가빈 / 신홍중 3학년 1반

비극

아몬드의 주인공인 윤재는 감정을 느끼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특이한 소년이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읽지 못하고 공포나 분노도 잘 느끼지 못하는 윤재는 '평범하게'살아가려고 버텨오고 있다. 어머니에게 남이 웃으면 따라 웃고 호의를 보이면 고맙다고 인사하는 주입식 교육을 받기도 했다. 괴물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윤재는 어느 날 비극적이 사건을 맞아 가족을 잃게 되면서 이세상에 홀로 남는다.

새로운 인연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던 순간 윤재 곁에 새로운 인연인 곤이,도라 심 박사가 다가온다. 이들과 지내면서 윤재는 감정이란 게 뭔지 점차 알게되며 지내게 된다.

나비 사건

곤이가 공감교육을 목적으로 플라스틱통에 나비를 잡아왔다. 나비를 잡아다 찢는 잔인한 행동을 하면서까지 윤재에게 무엇을 느끼게 하고싶었을까?내 생각에는 윤재에게 나비를 찢는 잔인한 행동을 함으로서 느끼지 못하는 분노 등의 감정을 느끼게 하려고 했던 거 같다. 곤이는 감정을 느끼지만 윤재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윤재도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느끼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날 나비는 죽었다. 책을 읽으면서 그 장면이 얼마나 잘 그려지고 곤이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힘들지 충분히 느껴졌다.

마지막

아몬드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윤재가 감정을 찾아가는 내용을 그린 책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치만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알 수 있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윤재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읽게되었다.

우리를 발전하게 하는 것

손원평, 『아몬드』, 다들링. 2023.을 읽고 쓴 서평

이학현 / 신흥중 3학년 1반

아몬드라는 소설의 주인공은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주인공은 느끼지 못한 기분을 느끼며 감정에 대해 잘 이해하려는 주인공의 이야기이다. 나는 이 책을 읽고 나의 지금의 삶과 같다고 느껴졌다. 이 책에서는 사람의 뇌에 편도체를 아몬드에 비유하고 있다. 사람의 뇌인 아몬드는 감정을 주관하는 기관으로써 공포를 자각하거나 기분의 나뭇을 느끼고, 좋고 싫은 감정을 느끼는 거다.

나의 아몬드

‘내 머릿속의 아몬드는 어딘가가 고장난 모양이다.’-p.30

나도 가끔 나의 아몬드가 덜 성장하고 어딘가가 고장난 것만 같을 때가 많이 존재한다. 그래서 다른 인상적인 부분보다 이 문장에 많은 공감했다.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나? 내가 이상한 건가? 나를 고쳐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곤 했다.

하지만 내가 알게 된 것은 결국 아몬드의 주인공의 할머니와 어머니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주인공이 다를 뿐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고 그리고 보면 나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다르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내가 미세한 단어의 차이를 감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정상인지 아닌지 따위는 내게 아무 영향도 미칠 수 없었다.’

사람의 온기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은 전 세계 1위이다. 이 수치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시선으로 다가온다. 왜 그런 것일까? 학교폭력, 따돌림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나는 사람의 온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사람의 온기는 어느 한 사람을 좋게도, 안 좋게도 만드는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1위인 이유도 사람들, 즉 선생님, 친구들의 온기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의 온기는 큰 힘이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우리들의 관심과 우리들의 따듯한 온기를 나누어 준다면 이 수치는 우리에게 더 이상 걱정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사람의 관심이 일으키는 기적

자세히 보면 이런 경험은 가까운 곳에서 느낄 수 있었다. 우리 반에서 있던 일이다.

지난 중학교 1학년에 불미스러운 일로 소년 교육원에 들어간 친구가 있었다. 그는 나와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다. 그 불미스러운 일로 나는 그 친구에 대해 걱정 반 두려움 반이었다. 시험이며 수행평가며 중학교 2학년 생활이 매우 빠르게 지나갔다. 중학교 3학년이 되어 1학기 막바지쯤이었다. 못 보던 친구가 교실에 앉아있던 것 아닌가? 바로 1학년 때 소년 교육원에 들어간 친구였다. 그는 활발했던 1학년 때 보다 그는 매우 조용하였다. 나는 나에게 괜한 불똥이 튈까 봐 아는 척도 하지 않고 쥐 죽은 듯이 학교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새 말이 없던 그 친구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고 새로 사귀 친구는 모든 면에서 우리들의 학교생활의 적응하도록 총력을 다해 도와주었다. 그 결과로 조용하던 아이는 우리와 이야기하고 장난치면서 활기가 느껴졌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아몬드에 주인공이 떠올랐다. 주인공도 친구들, 어른들의 도움으로 활발해진 것처럼 이 아이도 다른 친구들 못지않게 활발해진 것이다. 어쩌면 친구 하나를 친구가 살린 셈이다. 나는 이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느꼈다.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돌봄의 기간이 가장 긴 동물은 사람이라고 한다. 평균 3~4년이 걸리는데, 이것도 남의 도움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정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은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일 것이다. 이 질문은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하기 좋은 질문이다.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성장하고 배우는 것 같다. 이 책에서 주인공이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할머니, 어머니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 아몬드의 주인공처럼 진짜 사람이 성장하는 데 누군가의 도움이 있으면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좌우 양옆 뒤를 다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아무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성장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대화 주제로 선정한다면 대화하는 공간이 소란스러울 것이다.

‘내 머리는 형편없었지만 내 영혼마저 타락하지 않은 건 양쪽에서 내 손을 맞잡은 두 손의 온기 덕이었다.’라는 글귀가 떠오른다. 지금의 내가 있는 이유도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주위를 돌려다 보면 나를 도와주던 따듯한 양손의 온기 덕분이었다.

나는 이 책을 더욱이나 추천하는 이유는 단순히 감정의 부재에 관한 이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고 있었던 감정, 사랑, 우정, 등등 인간이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의 가치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우리도 우리들의 뒤에 우리를 도와주는 손길들이 있듯이 무심코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몬드

-손원평 「아몬드」, 다들링 2023.을 읽고 쓴 서평

공정현 / 신흥중 3학년 1반

난 어릴 때부터 감정이 풍부했다.

그래서 그런가 언제나 누구에게나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는 일이 자주 있었다. 어느 날 선생님께서 책 한 권을 소개해주셨는데 그 책의 이름 '아몬드'였다. 아몬드에 이야기는 나하고 상반된 이야기로 감정이 없는 아이가 사회에 도움과 상처로 감정이 생긴다는 이야기로 난 이 책이 마음에 들었다 사람은 반대되는 사람이 마음에 든다고 하였나, 이 책을 읽기로 마음을 먹었다.

Too Many People

우리에게 감정이란 사람들과 친해지고 만들고, 또 울게 만들며, 또한 화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우린 이런 감정을 물건처럼 사용하지만, 이 물건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아이도 있다. 그 아이는 우리와 다른 걸 알아도 잡아주는 사람이 없기에 사회 속에서 방황하다 사회라는 절벽 밖으로 우린 민다.

Imagine

사람은 어릴 때부터 감정을 배우고 그 배움을 죽을 때까지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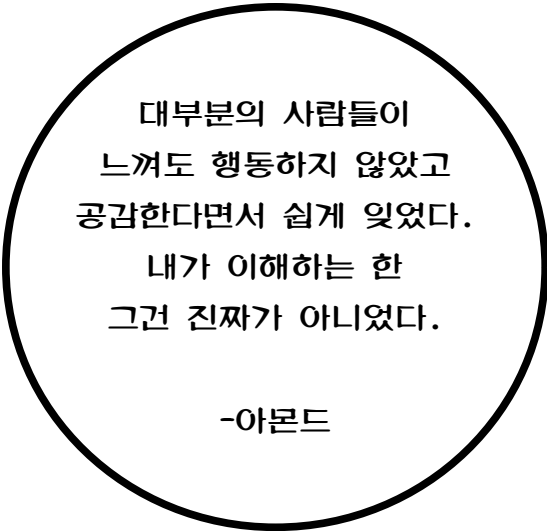
나도 그렇듯 태어나 서로부터 쪽 감정을 배우고 그 감정을 나누며 인간관계를 잡으며 사회에 다가가지만. 감정을 잘 못 느끼는 사람은 다르다. 감정을 태어났을 때부터 감정이 없는 아이는 인간관계에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사회 밖으로 나오기 마련이다. 감정을 못 느끼는 사람은 사회에서 나오는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사회에 있는 사람들로 부터 감정을 이해하는 데 대해서 어려움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I've Get A Feeling

나는 어릴 때부터 감정이 많았다.

웃기도 하며 울기도 하며 때론 친구들과 싸우기도 했다. 근데 어릴 때의 난 친구들과 자주 싸웠다. 그래서였을까? 선생님은 나에게 화를 내셨다. '화를 참아라'라고. 물론 처음부터 화를 잘 참을 수는 없었다. 무슨 일만 하면 친구들과 싸우고 친구들과 싸우고 나서 선생님 싸우고 선생님과 싸우면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며 내 내면과도 싸웠다. 근데 어느 날 노력 덕분일까? 점점 나아지는 걸 느꼈다. 바뀌면서 많은 걸 느꼈다. 선생님이 없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점차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 ‘아몬드’란 책은 ‘세상이 주인공에게 주는 시련’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주인공의 인생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며 이 삶이 계속될 거 같을 때마다 세상은 주인공에게 시련을 준다. 아버지가 안 계신 세상, 어머니 안 계신 세상, 할머니가 안 계신 세상, 세상은 주인공에게 시련을 주어 주인공의 감정을 만들고 친구와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생기며 주인공의 삶을 바꾸려고 하는 세상의 뜻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며 서평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껴도 행동하지 않았고
공감한다면 쉽게 잊었다.
내가 이해하는 한
그건 진짜가 아니었다.

-아몬드

비가 있기에 무지개가 있다

-손원평 「아몬드」, 다즐링 2023.을 읽고 쓴 서평

안준혁 / 신흥중 3학년 1반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기에 우리가 훌륭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걸까? 다른 이들의 도움은 전혀 없었을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책을 읽으면 이 질문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소년 윤재가 감정을 느끼기까지의 일을 담은 이야기. 인간관계에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책이다.

따뜻한 비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윤재와 곤이의 관계이다. 윤재와 곤이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인물들이다. 윤재는 감정표현 불능증이 있고 태어나 감정을 느끼지 못하며 세상과의 단절을 겪는다. 반면 곤이는 겉으로는 폭력적이고 거친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사실은 깊은 감수성을 지닌 아이로, 과거의 상처로 인해 방어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 두 인물의 만남은 서로에게 큰 변화를 가져온다. 윤재는 곤이 덕분에 감정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고 곤이는 윤재 덕분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두 인물은 서로의 부족할 점을 채워주며 서로에게 하나뿐인 친구로 변하게 된다.

어린 시절의 상처

어느 날 한 기사를 보게 되었다. 그 기사는 “강력범죄자들이 다른 범죄자들에 비해 가정 폭력을 겪은 비율이 높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였다. 나는 이 기사를 읽고 자신이 겪은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면서 어떻게 남에게도 이 고통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다른 한편으로는 어린 시절 겪은 그 고통의 충격이 얼마나 컸으면 그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처럼 어린 시절 주변 환경을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 큰 영향을 주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나는 이런 행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큰 행복인 것 같다.

다른 이들의 따뜻한 손길

나는 코로나가 한창 유행이던 시기에 전학을 가게 되었다. 새 학교의 친구들과의 첫 만남은 온라인 수업으로 시작되었고, 몇 개월 뒤 등교를 할 수 있게 되어 친구들과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나의 바람과 달리 친구들은 나에게 먼저 다가와 주지 않았고 소심한 성격을 가진 나는 친구를 사귀지 못한 채 1년이 지나갔다. 나는 또다시 전학을 가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전학을 간 학교의 친구들이 나에게 먼저 다가와 주었고 그 덕에 나는 친구들과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다. 그 덕에 나는 전보다 좀 더 용기를 낼 수 있게 되었고 중학교에 와서도 여러 친구를 잘 지낼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인생에 있어서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지 알게 되었다.

활짝 핀 무지개

"갑자기 뺨이 뜨겁다. 엄마가 뭔가를 닦아준다. 눈물이다. 어느새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다. 내가 운다. 그런데 또 웃는다." 이 문장은 윤재가 결국 끝내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 문장이다. 윤재가 혼자 노력해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된 걸까? 나의 답변은 "아니다"이다. 윤재가 이러한 감정을 느끼기까지 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다. 할머니와 엄마의 감정을 가르치려고 했던 노력, 의지할 수 있던 친구 곤이, 사랑이란 감정을 느끼게 해준 도라, 할머니를 잃고 엄마가 의식불명에 빠졌을 때 도와주었던 심 박사 이러한 도움이 없었다면 윤재는 감정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환경을 신중하게 선택하라, 그것이 당신을 만들 것이다. 친구를 신중히 선택하라, 당신은 그들처럼 될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처럼 우리는 훌륭한 부모님이 있었기에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고 옆에 진정한 친구가 있기에 지금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한 번 주위를 둘러보라. 당신의 인생에 무지개가 뜰 수 있게 따뜻한 비의 역할을 해준 사람이 있었음을 알게 될 테니.

무감각한 나날을 해결하는 과정

-손원평, 아몬드, 창비, 2017.을 읽고 쓴 서평

백준기 / 신흥중 3학년 2반 ringkle@naver.com

책 '아몬드'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소년의 특별한 성장 과정을 담은 성장소설로서 장애에 대한 사회의 시선, 사랑, 타인에 대한 감정 결여 등 우리 사회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책이다.

감정의 이해와 소통의 어려움

나는 책 '아몬드'를 보자마자 딱 내가 재미있게 보았던 드라마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생각났다. 책 '아몬드'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둘 다 주인공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타인과의 소통에서 어려움을 겪는 과정을 그린다.

책 '아몬드'의 주인공인 윤재는 선천적으로 '알렉시티미아', 즉 '감정표현 불능증'을 앓고 있다. 표현 불능이라고 하지만 표현을 못 한다기보단, 잘 느끼질 못한다. 또한 사람들의 감정을 잘 읽지 못하고,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들을 헛갈려한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주인공인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변호사이다. 우영우는 사회성이 부족하고 감정표현이 서툴러서 세상은 그녀에게는 낯설고 어렵기만 하다. 하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인물이다.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책 '아몬드'의 주인공인 윤재의 삶은 무미건조하게 흘러간다. 주인공의 주변 사람들은 감정을 표현하고 이해하며, 관계를 맺어가는 데 어려움이 없지만, 윤재는 관계를 맺어가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그는 종종 친구들에게서 소외되고, 그로 인해 갈등도 발생한다. 특히 친구와의 갈등은 그에게 큰 혼란을 발생시킨다. 윤재는 친구의 감정을 알 수 없으므로 이해하지 못해 실수하며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

이러한 장면은 글을 읽는 독자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책 '아몬드'를 읽고 나서 전하고 싶은 한마디는 “감정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 고리 중 하나이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우리 모두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이다.

주인공 윤재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결국에는 친구를 돕고 싶다는 마

음에서 자신의 감정을 발견하게 된다. 이 과정은 우리가 타인과의 대화에서 얼마나 많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때로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 감정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더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각자의 고민과 아픔을 안고 살아간다. 그러나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진심으로 소통하려는 자세를 갖는다면, 그 안에서 생기는 유대감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따라서 책 '아몬드'를 통해 느낀 감정의 중요성과 타인과의 연결의 가치를 잊지 말고, 하루하루 소중한 감정을 나누며 살아가면 좋겠다.



감정을 느끼지 못했던 아이의 얘기

-손원평 「아몬드」, 다들링 2023.을 읽고 쓴 서평

이석근/신흥중 3학년 2반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늘 감정을 느낀다. 특히 나와 같은 학생들은 사춘기를 겪으면서 더 감정을 많이 그리고 격하게 느낄지도 모른다. 이 아몬드라는 책도 이 감정들을 잘 느끼지 못하는 소년이 겪는 여러 사건을 다루고 있다.

아몬드를 처음 본 나의 느낌

아몬드라는 소설을 처음 봤을 때는 조금 의아했다. 소설 그것도 청소년 인기 소설의 이름이 견과류라는 게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 평소에도 아몬드라 하면 뭔가 딱딱하고 이질감이 느껴지는 것도 한몫 한 거 같다. 하지만 막상 책 표지를 보았을 때는 붉은 배경에서 쓸쓸해 보이는 소년의 모습에 눈에 들어오면서 ‘아몬드라는 제목의 뭔가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도 주인공의 어머니가 편도체에 이상이 있는 주인공을 위해 항상 주었던 것이 아몬드라는 걸 알았을 때는 뭔가 가슴속에서 찡하는 느낌이 들었고 아몬드라는 제목의 뜻도 모르고 무작정 속으로 욕하던 나 자신이 좀 부끄러워졌다.

아몬드가 내게 전하는 이야기

아몬드를 보면서 아몬드가 내게 전하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 것 같았다. 작중에 곤이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어머니의 모습 주인공에게 알려달라 한 장면이 있다. 주인공은 당시 곤이의 연기를 하고 있었던 자신에게 곤이의 어머니께서 따뜻하게 감싸 안아 주었다고 말했다. 곤이는 그 말을 듣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작중 이 장면을 보면서 나는 폭력적이고 욕을 입에 달고 살던 곤이의 걸모습을 보다가 작중에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울고 있는 내면의 모습을 보니 평소에 내가 다른 친구들을 볼 때 그 친구들의 걸모습, 말투만을 보고 그 친구를 판단했는지 내가 그 친구의 진짜 내면.하고 싶은 말을 듣게 귀를 기울여 줬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마치 소설이 내게 다른 사람들을 외견만을 보고 그 사람 진짜 내면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내게 한 것 같았다.

아몬드 대사 해석, 글쓴이의 의도

아몬드의 대사를 보면서 글쓴이가 말하는 것 같이 들리는 대사가 몇몇 있었다. '난 자두 사탕이 좋다.' '피 맛과 달콤한 맛 어우러져 맛이 정말 좋다'라는 대사가 있다. 나는 이 대사도 글쓴이가 아몬드를 있는 독자들에게 인생(자두 사탕)은 행복(달콤한 맛)과 절망, 시련들(피맛)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하는 것 같다. 처음 그 대사를 보았을 때 나한테는 시련(피 맛)을 겪으면서 나아가면 그 끝에는 행복(달콤한 맛)이 있다. 그렇기에 인생 아름다운 거다(좋다)라고 소설이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사랑받은 기억이 없어...엄마와의 기억 빼곤' 작중 곤이가 한 대사이다. 이 대사를 통해 사랑을 받으며 자랐지만, 감정을 못 느끼는 윤재(주인공)와 사랑을 받은 기억조차 적지만 감정적인 곤이를 더욱 대조되어 만들려는 의도로 글쓴이가 이런 대사를 넣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아몬드라는 소설에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 아내를 잃어 의사를 포기하고 빵집을 차린 아저씨. 10여 년과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지만, 사이만 계속 나빠져 가던 아저씨 등 평범하지만 평범한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여러 등장인물의 모습들을 보며 지금 난 정말 편하게 살고 있구나...란 생각이 들면서 평범함에 대해 소중함과 감사함을 느끼게 됐다.

나는 세상을 이해하고 싶었다

-손원평 「아몬드」, 다들링 2023.을 읽고 쓴 서평

전하진 / 신흥중 3학년 2반

감정을 찾아가는 길

감정표현 불능증을 앓고 있는 열여섯 살 소년 선윤재. '아몬드'라 불리는 편도체가 작아 분노도 공포도 잘 느끼지 못하는 그는 타고난 침착성, 엄마와 할머니의 지극한 사랑 덕에 별 탈 없이 지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이브이던 열여섯 번째 생일날 벌어진 비극적인 사고로 가족을 잃었다. 그렇게 세상에 홀로 남겨진 윤재 앞에 곤이가 나타난다. 놀이동산에서 엄마의 손을 잠깐 놓은 사이 사라진 후 13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곤이는 분노로 가득 찬 아이다. 곤이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자신을 무서워하지 않는 윤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윤재를 괴롭히고 윤재에게 화를 쏟아내지만, 윤재는 곤이의 행동에 동요하지 않는다. 곤이는 동요가 없는 윤재 앞에서 오히려 찢찢매고 만다. 그 후 두 소년은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우정을 쌓아가기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윤재는 조금씩 내면의 변화를 겪는데 바로 같은 학교 여자아이인 도라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윤재와 곤이 사이에 비밀이 생기고 이 때문에 곤이는 다시 나락으로 빠진다.

곤이를 구하러 간 윤재는 곤이 대신 칼을 맞고 눈을 감는다.

윤재는 결국 깨어나고 식물인간이었던 엄마도 깨어나며 윤재는 서서히 감정을 찾아간다.

나의 생각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사람은 모두 감정을 느끼며 살아간다. 처음 윤재가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조금이나마 윤재가 부럽다고 생각했다. 감정을 느끼지 않으면 딱히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았다.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픔도 슬픔도 기쁨도 느끼지 못하는 윤재가 슬퍼 보였다. 이 책을 읽고 나니 감정이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손원평 「아몬드」, 다즐링 2023.을 읽고 쓴 서평

정주환 / 신흥중 3학년 2반

선천적으로 감정을 못 느끼는 아이 윤재가 16세 크리스마스이브에 엄마는 다치고 할머니를 잃었지만 곧이라는 아이를 만나고 감정을 못 느끼는 윤재가 다양한 사건을 겪고 돌만의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내가 새롭게 배운 점

아몬드를 보면서, 인간과 감정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윤재의 감정 표정은 처음에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나중에 이야기를 알게 되고 점점 더 몰입되고 이해할 수 있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성장한 점

아몬드는 16세 크리스마스이브 날의 지극한 사건으로 할머니를 잃고 엄마는 다쳐 윤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윤재에게 도움을 주는 친구와 어른들을 만나 성장하는 이야기다. 이와 비슷한 책으로는 해리 포터가 있다 해리 포터란 어렸을 때 악당에게 부모를 잃고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친구와 어른들을 많이 만나고 비록 악당들도 많이 만나 힘든 일도 있었지만, 결코 해리 포터는 그 힘든 일을 다 해결하고 성장하는 책이다.

또 아몬드랑 비슷한 영화로는 제 생각은 캡틴 아메리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캡틴 아메리카는 몸이 엄청 연약하지만 입대를 지원했지만 부적절이 나왔지만 한 박사를 만나 슈퍼 솔저를 만드는 군대에 들어가 거기에서 한 훈련을 진행하는데 거기서 장관이 터지지 않는 수류탄을 던졌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피했지만, 주인공은 수류탄을 온몸으로 막아 눈에 띄어 이상한 약물을 맞아 몸이 좋아져 악당을 물리쳐 성장하는 이야기라 생각한다.

내가 성장한 점

아몬드 책과 저의 비슷한 경험은 쓰러진 것입니다. 저는 작년 겨울에 축구를 하다가 쓰러져 병원에서 일주일간 입원했습니다. 이런 점이 왜 비슷하냐면 저는 이 일을 겪고 성장했습니다. 다시는 겨울에 축구를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점이 왜 비슷한지 알겠죠. 제 생각은 아무리 힘든 일들이 많아도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 시험 수능 회사 취업 이렇게 많은 힘든 일이 있어도 좋은 친구 좋은 어른들을 많이 만나며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없다고 생각한다.

아몬드를 읽고

고종원 / 신흥중 3학년 3반

선천적으로 감정을 못 느끼는 아이 윤재가 16세 크리스마스이브에 엄마는 다치고 할머니를 잃었지만, 곤이라는 아이를 만나고 감정을 못 느끼는 윤재가 다양한 사건을 겪고 둘만의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책 아몬드를 읽고 느낀 점과 인상 깊었던 부분이 많았다.

먼저 아몬드 책의 주인공인 신윤재가 몸이 아픈 것 때문에 억울하게 욕을 먹는 모습을 보고 나도 야구를 하면서 억울하게 욕을 많았던 적이 많았다. 잘해도 욕을 먹고 못 하면 더 욕을 먹었다. 그런 부분이 너무 공감돼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다.

아몬드를 읽고 느낀 것은 사람들은 서로를 잘 이해하지 않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몬드 책에 나오는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해서 좋은 관계를 맺는 모습이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다.

감정 없는 아이

-손원평 「아몬드」, 다즐링 2023.을 읽고 쓴 서평

강규민 / 신흥중 3학년 3반

이 책은 감정이 없는 한 아이의 불행이 담긴 내용이다.

편도체의 기능

이 책의 제목은 편도체의 크기를 비유한 것이다. 편도체는 뇌의 한 부분이다.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이 책에서 이것에 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다. 편도체의 기능은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의 주인공은 편도체가 작아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한다.

감정 없는 아이

이 책의 핵심 내용은 감정이 없는 아이에 관한 이야기이다. 주인공은 편도체가 작아 감정을 못 느낀다고 한다. 이 주인공은 우리가 흔히 느끼는 행복, 슬픔, 화남 등의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이 주인공은 자신의 생일 때 가족과 외식을 하러 갔다. 하지만 한 남자에 의해 아이의 엄마는 식물인간이 되었고, 할머니는 죽게 된다. 이 아이는 눈앞에서 할머니와 엄마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아이는 감정을 느끼지 못해 슬픔 화남 등의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주인공은 한순간에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책의 마지막 부분에 주인공의 엄마가 깨어나게 된다.

부모라는 책임

텔레비전에서 본 내용 중에 이 책과 비슷한 내용이 있다. 그것은 바로 고아에 관한 내용이다. 이 책에 “자기네들 맘대로 낳아놓고 왜 내가 자기들이 정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데?” 라는 문장이 있다. 이 문장에서 와닿았던 부분은 ‘자기네들 맘대로 낳아놓고’ 였다. 왜냐하면 주인공처럼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을 수 있지만, 아이를 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뉴스나 영상들을 보면 “왜 어른들은 자기들의 만족 때문에 아이를 낳아놓고, 왜 정작 그 아이들을 책임지지 않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든다.

안타까움

이 책을 볼 때 안타깝게 본 부분이 있었다. 그 부분은 주인공이 가족을 잃은 부분이었다. 왜냐하면 주인공은 생일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다. 물론 주인공은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해 사랑이란 감정을 모를 수도 있겠지만 책 마지막 내용에서 주인공이 식물인간이 되었던 엄마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올 때 눈물을 흘린 것을 보면 아마도 감정을 아예 못 느끼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주인공은 눈앞에서 할머니와 엄마가 피를 흘릴 때 슬픔과 화남이란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했다.

이 책을 읽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꿈에 대해서, 고아에 관한 내용의 영상에 대해서 등... 어쨌든 이 책을 읽으면서 든 생각은 “주인공이 불쌍하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든 것 같다.

우리는 어떻게 성장했을까

-손원평 「아몬드」, 다들링 2023.을 읽고 쓴 서평

김민규 / 신흥중 3학년 3반 mkmj4040@gmail.com

사람은 성장을 한다. 성장은 인생에서 중요한 과정이다. 이 아몬드라는 책도 성장관 관련된 이야기이다. 감정을 못 느끼는 소년이 주변 사람 도움을 받아 성장하는 이야기. 또한 아몬드는 교훈들이 담겨 있어 자신도 모르게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한다.

부모의 마음

나는 아몬드의 내용 중 초반 부분을 읽었을 때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식을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몬드를 읽으면서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책에서처럼 '선운재'라는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편도체가 작아 감정을 잘 못 느낀다고 하더라도 엄마는 좌절하지 않고 아이에게 감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려고 노력했다. 또, 윤 교수와 같이 '곤이'라는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이해해 보기로 하는 마음들을 보고 부모의 마음은 똑같다고 느꼈다.

나도 내 기억을 생각해 보면, 내가 몰래 담배를 피워 걸렸어도 어머니는 막 혼내시기보단 많이 우셨다. 그때 어머니가 우신 이유는 내가 담배를 피우면 자신의 몸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나의 몸이 나빠지기 때문에 속상하셔서 우셨다. 아몬드를 읽고 다시 생각해 보니, 어머니가 왜 우신 줄 더욱 알게 되었다.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하는 거 같다. 그게 아무리 목숨을 거는 일일지라도. 아몬드는 부모님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게 해주는 책이고, 부모님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있을 때 잘하자

아몬드를 읽고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사람은 외할머니였다. 나도 '선운재'와 같이 어릴 때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할머니는 평일 아침 일찍 집에 오셨다. 부모님이 맞벌이 생활로 나를 돌볼 수 없어 할머니가 집에 오시는 거였다. 그때는 내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할머니가 집에 오시는 게 싫었다. 할머니가 날 돌보려 오시는 것도 모르고.

나는 할머니를 싫어해서 많이 싸우곤 했다. 틈만 나면 할머니에게 대들거나, 집을 어지럽혔다. 그렇지만, 할머니는 나를 잘 챙겨주셨다. 학교가 끝나면, 나를 데리러 와주시거나, 운동을 다녀오면 고생했다고 삼겹살을 구워주셨다.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도 매일같이. 그렇게 할머니는 나를 온갖 정성을 담아 키워주셨고 초등학교 4학년 때쯤 떠나셨다.

하루하루가 난 후회스러웠다. 나 때문에 떠나신 거 같은 생각 때문에. 나는 지금 와서도 그때 할머니께 잘 해드렸다면, 얼마나 좋았겠냐는 생각을 자주 하고, 왜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는지 알게 됐다. 아몬드 책은 나의 외할머니를 더 생각하게 하는 책이고, 할머니와 지내던 날들을 되돌아봐 성찰할 수 있게 하는 책이었다.

혼자서 성장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무언가를 느끼고, 배우면 성장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엔 성장이라만 단어에만 관점을 둔다. 과정에서 어떻게 느끼거나, 누구한테 배웠는지는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마치 현대 사회에서처럼 높은 자리에만 관심을 두고, 거기까지 가기 위한 과정은 보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아몬드 책에서는 '선운재'가 성장을 하는 과정 중에서 누구의 도움이 있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알 수 있었던 책이다. 이 책은 높은 자리만 보는 현대 사회를 비판하는 것과 같았다.

책에서처럼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과정을 거친다. 훌륭한 과정 중 제일 알아줘야 하는 것은 주변 사람의 도움이다. 주변의 도움이 있어 무언가를 느끼거나,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에게 교육을 받고 자라며, 학교에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것들을 교육한다. 또한, 친구하고는 표현을 공유해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도움들이 하나하나가 모여 사람에게 성장을 이끈다. 성장이라는 과정에서 주위 사람들의 소중함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마이너스=플러스

아몬드 책에서는 명대사들이 많다. 그만큼 감명이 깊고, 계속 보고 싶은 문장들도 많다.

나는 많은 문장 중에서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 이퀄 플러스'라는 말이 제일 인상이 깊다. 마이너스가 부정적인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나는 이 문장을 보고 딱 떠오르는 상황이 있었다. 만약 친구가 슬퍼하고 있으면, 다른 친구는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가 겪은 슬픈 일을 말한다. 그러면 묘하게도 기분이 나아진다. 분명 슬픈 일을 말했는데도. 이처럼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는 현상들은 많다.

그리고, 내가 이 글귀를 읽고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건 바로 '힘내'라는 말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지칠 때가 많다. 그때 우리는 종종 자신을 잃는 느낌이 든다. 하지만 이런 순간조차도 우리에게 중요한 성장의 기회를 준다. 마이너스라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훨씬 더 강해지고, 더 깊은 성장을 한다. 기억하세요. 많은 이들은 비슷한 길을 걸어왔으며, 그들은 결국 빛을 찾아갔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마이너스라는 존재는 조만간 플러스로 바뀌게 된다.

나는 이 책을 읽고 주변 사람의 도움이 크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지. 그래야 우리는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알아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서로 부딪히며 살아간다

-손원평 「아몬드」, 다즐링 2023.을 읽고 쓴 서평

김정우/신흥중 3학년 3반

나 어찌면 우리는 이 순간에도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시험을 잘 봐서 또는 못 봐서 돌보던 개가 죽어서 등등 수많은 순간에서 행복, 기쁨, 슬픔, 즐거움과 같은 여러 감정을 느낀다. 이 아몬드라는 책은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한 소년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이다.

처음 본 아몬드의 느낌

아몬드라는 책의 이름을 처음 보았을 때 뜬금없이 견과류의 이름이 나와서 요리와 관련되거나 가벼운 느낌의 소설인 줄 알았다. 하지만 막상 표지를 보았을 땐 반짝이는 도로의 조명들 그 가운데 외롭게 서 있는 소년의 모습에 빨려 들어가는 거 같았다. 이 책이 정말 아몬드가 맞는지 몇 번이나 되새겨 봤다. 책을 다 읽고 제목을 다시 봤을 때는 주인공의 어머니가 주인공의 편도체가 정상이 되길 보라며 주었던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는 조금 눈물이 났던 것 같다. 그런 의미도 모르고 제목만 보고 속으로 책을 비웃었던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한편으로 '제목의 이름을 좀 더 이 책을 안 보아도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제목으로 했다면 좀 더 책을 보는 사람이 늘지 않았을까?'란 생각도 들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거 같다.

아몬드가 전하는 이야기

아몬드라는 소설을 읽으면서 내게 전하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대사가 하나 있었다.

”곤이는 착한 아이예요“ 곤이의 속을 모르고 욕하고 폭력적인 걸모습만 본 윤 교수는 무작정 곤이를 처벌하기만 하지만 주인공은 사실은 속이 여리고 공감을 잘하며 자신을 이해해줄 사람을 찾던 곤이의 내면을 알고 있어 이런 대사를 했다. 이 대사를 보며 나는 다른 사람들을 걸모습 과거의 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의 진짜 모습 내면을 봐야 한다고 책이 내게 전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 대사를 보며 나도 평소에 사람들을 걸만 보고 판단했는지. 그 사람의 진짜 내면을 보려 하지 않았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글쓰이의 의도를 찾다

요즘 세상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무슨 짓을 하였든 법·동정 등에 이유로 보호받고 있다. 하지만 그런 동정하는 여론 때문에 가해자는 큰 처벌을 받지 않는 것 같다. 실제로 책에서도 ‘누가 희생당했는지는 잊힌 지 오래다.’ ‘중년 남자들은 남자(살인자)를 동정하기 시작하기도 했다.’라는 대사가 나온다. 이 대사로 글쓰이는 범죄자를 옹호·동정하는 여론이나 반성문을 하나 쓴 것으로 형량을 줄여 주는 법을 가진 나라가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대사를 쓴 것 같다. 특히 이 책이 나온 2023년에는 조두순 사건과 같이 범죄자들이 형량을 적게 받는 사건들이 흔했기에 더욱더 작가의 의도가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몬드라는 책에 주인공처럼 세상에서 시련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나와 같은 학생들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잘 보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을 것이고 어른들도 돈을 벌기 위해 직장을 얻기 위해 등의 이유로 시련을 겪는 사람들도 있을 거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대사를 들려주고 싶다. ‘삶은 여러 맛을 지닌 채 흘러간다.’ ‘그것이 희극인지 비극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나는 부딪쳐 보기로 결심했다.’ 우리가 시련을 겪는 이 순간에도 삶을 흘러간다. 그 삶에 부딪혀가며 그것이 희극인지 비극인지를 정하는 것은 나 자신이라고 글쓰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지금 여러 시련을 겪고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주인공처럼 끝까지 부딪치면 어떤 시련도 이겨 낼 수 있다는 용기를 내게 주어서 더욱더 인상 깊었고 여운을 남겼다. 요즘에는 수능을 망쳐 끔찍한 짓을 한 수험생, 술의 치여 살다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람들과 같이 여러 ‘시련’들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뉴스에 나온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처럼 다가오는 ‘시련’들을 회피했는지 직접 부딪쳐 보거나 해결하려 노력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감정 결여와 현대 사회

-손원평 「아몬드」, 다즐링 2023.을 읽고 쓴 서평

박경률/신흥중 3학년 3반

우리는 항상 누군가에게 존중하며 살았다. 학교에서도 존중과 배려를 깊게 배우도록 하고 도덕이라는 과목도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요즘은 누굴 배려하기보단 조롱하고 비난이 난무하다. 현대 사회로 들어서며 나타나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대한민국은 더욱 심하다. 이런 현대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필자가 읽은 책 아몬드에 담겨 있다.

아몬드의 첫인상과 느낌

필자는 아몬드를 읽기 전과 읽고 난 뒤의 인상이 조금 달랐다. 아몬드를 읽기 전에는 제목과 표지 내용이 서로 달라서 무슨 내용인지 감이 오지 않았다.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하필 아몬드인가. 표지는 왜 또 철학적으로 생겼는가, 질문이 쌓일수록 책의 내용을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책을 읽을 땐 생각보다 내용이 간단했다.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소년인 윤재의 일생을 담은 내용이었는데 생각보다 단순한 주제를 신박하게 표현해서 놀랐고, 윤재 주변의 여러 가지 인물들이 현실과 매우 흡사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곤이가 욕을 짝짝 뱉는 걸 읽다 보면 진짜 현실에 있는 사람이 말한걸. 그대로 적어놓은 것 같았다. 책을 읽으면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윤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그걸 읽을 때마다 생각을 깊게 하게 된다. 깊은 생각을 할 때면 아몬드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인상적인 내용

아몬드 책의 주인공이 겪은 일이 많았는데 필자가 가장 기억나는 장면이 2개가 생각난다. 하나는 곤이와 윤재의 피자집에서의 첫 만남과 마지막에 나오는 곤이 대신 희생하는 윤재가 희생하기 전에 느끼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기억에 남는다. 곤이를 처음 본 윤재는 사고를 당해서 엄마는 식물인간이 됐는데 윤재는 엄마라는 삶의 길잡이가 사라져서 세상을 알기 어려웠다. 윤재는 세상을 더욱 알고 싶었기에 곤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곤이에게 온갖 수모를 당하고도 피자집에서 곤이를 따라한 것은 아마 곤이를 알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다. 마지막에는 윤재가 곤이 대신 희생하는데 그 전에 엄마와 할머니에 대한 회상을 한다. 멀면 멀다고 가까우면 가깝다고 나서지 않아서 사고를 당한 윤재는 나서지 않고 방관만 하는 사람이 되기 싫었다. 윤재는 또 다른 소중한 사람인 곤이를 잃기 싫어서 대신 희생한 것을 보면 윤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 수 있다.

주인공의 경험을 경험하다

윤재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있다. 하지만 필자도 감정을 못 느낀다고 생각되는 때가 있다. 윤재처럼 모든 감정은 아니지만 슬픈 영화나 드라마의 하이라이트를 볼 때마다 저게 왜 슬픈지 모르겠다. 영화가 이해가 안 돼서 공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동용 영화인 코코 같은 영화를 봤을 때도 그랬다. 그때 영화관에선 훌쩍이는 소리가 가득했는데 필자의 표정은 그저 무표정이었다. 그리고 유튜브를 포함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종종 보이는 웃음 참기 영상을 볼 때도 그렇다. 유머 코드를 이해하지 못해서도 있지만 웃긴 장면이 나와도 그냥 웃기지 않는다. 웃음을 참기보다는 웃음 자체가 그냥 나오지 않았다. 이런 면에선 윤재와 비슷하단 생각을 해본다.

글쓰이의 의도

지금 당장 길에서 부모를 잃은 아이가 당신에게 돈을 요구하면 어떤 감정이 드는가.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거나 다른 핑계를 대서 아이를 빨리 쫓아내길 바랄 것이다. 아마 필자도 그럴 것이고, 더 심하면 아이에게 비난을 쏟는 사람도 없진 않을 것이다. 이 문제는 필자가 읽은 아몬드 속 윤재가 겪은 일과 매우 흡사하다. 윤재가 겪은 사고를 통해 현대 사회의 공감 능력 결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할머니를 잃은 느낌이 어떠냐 묻는 아이들, 사고 현장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안타깝다고만 말하는 사람들, 텔레비전 속 전쟁 때문에 의식주를 잃은 아프리카 난민을 보고 아무런 표정 없는 심 박사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윤재는 자신만 감정이 없는 줄 알았지만, 자신처럼 남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현대 사회의 사이코스러운 모습이 더욱 드러나는 부분이다. 하지만 곤이는 달랐다. 비록 분노에 가득 차 있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엔 무관심하지만, 그가 나비를 죽이고 우는 모습을 보면 아직 인간성이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윤재는 이를 알아채고 곤이와 소통과 공감을 해서 곤이의 인간성을 회복시켜줬고 마지막엔 윤재에게 고맙다고 편지를 썼다. 이는 현대인들도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다. 이들이 서로 소통한 것처럼 현대인들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으로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면 현대인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 간의 대화가 줄어든 현대 사회 속 현대인들은 시간이 갈수록 공감 능력이 줄고, 소통하려는 의지가 줄 것이다. 이 문제가 지속되면 현대인들은 윤재처럼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정도의 공감 결여가 생긴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공감이 사라진 사회는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저 속 빈 강정일 뿐이다.

아몬드를 읽고

-손원평 「아몬드」, 다즐링 2023.을 읽고 쓴 서평

염준호/ 신흥중 3학년 3반

이 글은 내가 아몬드를 읽고 쓴 글이다. 이 글은 아몬드를 읽고 내 생각과 인상 깊은 장면을 적고 이야기하는 글인데 이 아몬드라는 책은 나에게 아주 충격적으로 다가온 책이면서 많은 생각과 행동을 하게 하고 또는 내가 이 책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나에게 큰 의미가 있는 책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아래에는 내가 인상 깊은 장면을 소개합니다.

인상 깊은 장면

소년이 뇌에 감정을 느끼는 부분이 작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하고 자식을 위해 매일 두뇌 계발에 좋은 아몬드를 많이 먹고 자신이 힘들어도 자기 자식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돌보고 신경을 쓰는 장면이 있는데 나 같은 경우에 이런 감동적인 장면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매우 인상 깊고 감동적이었다.

두 번째 장면은 소년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범인에게 살해당하는 장면인데 할머니는 눈앞에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지만, 소년은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하고 할머니의 장례식과 어머니의 병원에 병문안을 가는 소년의 모습이 소설이라기에는 너무 생생하게 내게 다가왔고 나는 그걸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감정을 못 느낀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면서 감정을 못 느낀다는 것이 섬뜩하게 느껴져 왔다 그러면서도 안타까웠는데 그 소년한테는 안타까움이라는 감정이 느껴졌을지도 궁금해졌다. 그래서 인상 깊은 장면으로 선정했다.

기억나는 장면

소년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와 친한 빵집 사장님이 소년을 챙겨주었는데 빵집 사장님의 따뜻함이 나한테도 느껴졌고 그 소년이 빵집 아저씨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궁금하고 그 빵집 아저씨는 어머니와 어떤 사이였을지도 궁금했지만, 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서 이 책에서 아쉬운 부분 중 하나여서 나중에라도 꼭 밝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년의 생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감정이 없는 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 이라는 게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장면을 선택했다.

네 번째로 선정한 장면은 소년이 곤이라는 아이를 처음 만난 장면이다. 소년이 곤이를 처음 만난 것은 학교에 갔을 때인데 소년이 학교에 간 이유는 어머니가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다니길 원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교에 와서 곤이라는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곤이는 안 좋은 소문도 돌고 안 좋은 애인 것 같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그 소년은 곤이가 시비를 걸었는데 소년은 곤이가 원하는 반응을 해주지 않고 무반응으로 반응해서 곤이는 당황스러워했다 그 뒤에 소년이 나는 네가 원하는 반응을 해줄 수가 없다고 말하자 곤이가 욕을 하였지만, 소년을 말을 이어갔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억지로밖에 못 해줘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곤이는 화가 난 듯 소년을 때렸다. 그래도 소년이 무표정이자 더 화가 나서 이따 따라오라고 했다 소년과 곤이가 싸우려고 할 때 많은 애들이 웅성거렸다 곤이가 맞기 싫으면 피하라고 했지만, 소년은 끝내 피하지 않았다 그 뒤 소년은 계속 맞고 또 맞았다 하지만 그래도 무표정인 소년을 계속하여 곤이는 때렸다 애들이 곤이가 때리는 모습을 보고 선생님을 불러왔다 그전까지 소년은 계속 맞았기 때문에 얼굴이 만신창이가 되어있었다 이 장면을 보고 나는 이 둘의 사이가 어떻게 될지 무서웠다. 제발 좋은 쪽으로 가길 바랐다 이 장면에서 나는 소년이 피하라고 했지만 피하지 않고 계속 맞지만, 곤이는 더 화가 나서 계속 때리는 모습이 무서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다.

이렇게 아몬드를 읽고 많은 생각을 하니 내 아몬드도 커졌을 것 같다 이 책은 많은 생각을 하고 독자들을 궁금하게 만드는 책이었다 이 책은 생각하고 싶을 때 읽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추천한다.

나의 작은 아몬드를 키워줘

-손원평 「아몬드」, 창비 2017.을 읽고 쓴 서평

차유민 / 신흥중 3학년 3반

소설 아몬드는 감정을 못 느끼는 감정표현 불능증을 겪고 있는 윤재가 여러 사람을 만나고, 경험하며, 감정을 배우는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다.

무서움이 없다고 강한 게 아니야.

윤재는 편도체가 작아 감정표현 불능증을 겪는다. 감정표현 불능증은 1970년대 처음 보고된 정서적 장애이며, 감정 중 특히 공포를 잘 못 느낀다고 한다, 그래서 윤재는 작중에서도 곤이와 사울 때도 무서움이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인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책을 읽으면서 비슷한 일을 찾아봤다. 텔레비전에서 문지 마 폭행 사건에 대한 뉴스가 생각이 났다. 문지 마 살인 사건은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동기 없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뉴스를 처음으로 접한 날 어떻게 이런 살인을 대비해야 할까 생각했고, 이러한 뉴스가 점점 많아지자 다시 한번 심각하다 느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니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이 어떤지 알 수 있었다. 윤재는 가족이 크리스마스 날 또는 생일날 문지 마 살인사건을 당하는데 크리스 마는 행복하고, 웃고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선물을 받거나 하는 분위기이지만 윤재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가족이 잃는 것을 준 것 같아 안타까웠고 크리스마스라는 어찌면 행복한 날을 기일로 삼게 되는 게 비극적으로 느껴졌다. 윤재는 크리스마스가 생일인데 생일 또한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지만 지신을 낳아주신 날에 부모님은 돌아가시니 만약 윤재가 감정이 있었다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을 것 같다.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동물.

책 내용과 연관된 나의 경험과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이 책이 어떻게 읽혔는지 설명하겠다. 먼저 연관된 경험으로 한창 정서적으로 힘들 때 감정이 둔해진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항상 웃고 싶어도 웃지 못했고 울고 싶어도 울지 못했었다.

아몬드에서는 감정표현 불능증이라는 정서적 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를 다루고 있고 책을 읽으면서도 조금 나와 닮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정에 관한 것을 조사한다,

데일 카네디의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라는 말이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감정은 동물도 있을 것이고 그럼 동물도 인간으로 볼 수 있을까? 그럼 윤재는 인간이 아닌 걸까? 라고 생각이 들었다.

보고싶었어요.

아몬드를 읽으면서 기억에 남는 문장이 2개 있었습니다

'우리는 칠판 지우개나 분필처럼 그저 학교를 구성하는 존재일 뿐이다' 곤이와 윤재가 싸움으로 관심을 받다가 더 이상 관심이 없어졌을 때 나온 문장이다. 이 문장은 결국 시간이 지나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져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다는 걸 학교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물건에 비유한 것 같았고,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전하는 것 같아 더욱 기억에 남는다.

'낮익은 미소다. 태어난 순간부터 쪽 보아 왔던 미소였으니까' 혼수상태에서 깨어난 엄마가 휠체어를 타고 윤재를 보면서 웃는데, 평범한 웃음이었어도, 쪽 보아 왔던 미소였어도 오랫동안 안 보지 못한 엄마를 보아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그 웃음이 그리웠을까 생각했다.

나는 이 서평을 마치며 소감은 아몬드라는 책을 여러 번 곱씹어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고 이렇게 감정이 없는 대사에도 감정이 느껴진 건 이 책이 처음이었다.

아몬드

-손원평 「아몬드」, 다즐링 2023.을 읽고 쓴 서평

신유하 / 신흥중 3학년 3반

나는 이번 국어 시간에 아몬드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이 책은 감정을 못 느끼는 소년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그래서 나는 이 소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들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느꼈던 감정과 아몬드 내용과 연관된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해보겠다.

먼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아들을 가진 엄마는 아들에게 많은 노력을 한다. 엄마는 아이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기도 했다. 그리고 아들에게 사람들의 기본적인 감정과 행동들을 최대한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가르쳐주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알려준다. 이처럼 엄마의 노력이 나에게 공감이 되기도 했다. 나의 경험으로는 내가 중학교 1학년 때였다. 내가 중학교 완전 초반이었기에 공부하지 않아서 공부했던 기억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방학 때 나의 심각성을 알고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고 학원에 다녀보지도 않았다. 그래서 나에게서는 조금 버거울 수밖에 없었다.

또한 내가 공부하는 방법도 몰라서 엄마는 그때부터 숙제하는 것들과 공부하는 것들을 매일 같이 도와주셨다. 나는 처음에 영어 알파벳 밖에 모르고 정말 아는 것이 없어서 시험 전까지 성실하게 준비했다. 그리고 2학년 첫 영어 시험에서 생전 받아본 적 없던 85점을 달성한다. 나는 이 점수를 보고 기뻐고 당연히 도와주신 엄마도 기뻐하셨다. 그래서 나의 이 경험이 지금까지도 내가 조금이라도 공부에 노력할 수 있게 만든 발판이 된 것 같다. 나의 경험처럼 아몬드에 나오는 아들도 많은 노력을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관심과 표현은 사람을 성숙하게 한다

-손원평 「아몬드」, 다즐링 2023.을 읽고 쓴 서평

조동혁/신흥중 3학년 3반

저는 이번 국어 시간에 「아몬드」라는 책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책을 읽기를 싫어하는 학생이지만 부랴부랴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처음 장편소설을 읽을 때 너무 길고 책을 읽을 때면 잠이 조곤조곤 오는 저에게 이번 수행평가는 재앙이었는데요. 그렇지만 국어 시간에 책 읽는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잠자는 제가 한심해 보여 책 읽으리라 다짐했습니다. 다음날 국어 시간에 저는 책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 책을 펼쳐보았습니다. 이 소설의 제목은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라는 소설은 편도체가 작은 주인공이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가슴 아픈 상황에서 주인공이 여러 사람을 만나며 성장하고 감정을 느끼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관심으로 바뀌는 사람

이 소설은 감정이 없는 주인공 윤재를 키우기 위해서 엄마와 할머니 등 여러 인물이 주인공을 잘 키우기 위해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돌봐줍니다. 묻지마 범죄로 인해 할머니를 잃고 엄마는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됩니다. 사건·사고 당시에 현장에 있던 윤재는 감정을 느끼지 못했는데요. 여러 인물들의 관심과 표현으로 윤재는 마침내 누군가를 보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엄마와 할머니 여러 인물들의 관심과 표현이 없었다면 발전하긴 힘들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금쪽같은 내 새끼”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은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이 말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에 사연을 신청해 나오는 형식인데요. 저는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서 모든 사랑은 관심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어떻게 해야 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입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를 잘 키웠으면 하는 부모의 관심과 표현이 있기에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이유고 아이를 도와주는 박사님 여러 게스트 분들의 관심과 표현이 없었더라면 성숙하게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관심과 표현이 중요한걸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주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표현은 발전이다.

다시 소설로 돌아오면 주인공인 윤재는 친구들 관계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을 사귀는 데 필요한 “관심”은 한걸음 두 걸음 다가갈 수 있는 발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윤재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기에 친구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 없었고 윤재의 학교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책에서는 곤이와 윤재가 서로 표현하고 다가가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시점부터 둘의 우정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표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구가 좋으면 “안녕”이라고 먼저 다가갈 수 있고 친구에게 고마움을 느끼면 고마워 라고 말하며 자기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은 관계를 발전시키고 『아몬드』라는 책에서 주인공인 윤재를 위해서 여러 인물이 관심을 주고 표현해주니 윤재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안해 나도 엄마 아빠는 처음이라서….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저에 대해서도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에는 늘 밝은 부모님의 마음을 모른 채 하루하루를 살아갔지만, 부모님은 아주 사소한 거조차 관심을 가지며 제 생각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딱히 부모님에 사랑에 대해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학원-집 똑같은 생활 속에 바쁘게 살고 있어서 이런 진지한 생각을 시간 갖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기 위해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읽어보니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나름대로 바쁜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늘 관심을 주고 잔소리도 하시고 사랑한다는 표현도 아주 많이 해주십니다. 이러한 “관심과 표현”이 모여 우리를 성장시키는 디딤발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몬드』를 읽으면서 저는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평소에 책을 멀리하던 제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학생들과 다름없이 책을 싫어하는 한 학생이지만 요번 국어 수행평가 시간에 서평 쓰기 수행평가를 함으로써 책에 접근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처음엔 지루했지만, 책을 읽기만 하면 잠이 오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책을 읽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책을 읽다 보니 내용이 너무 흥미진진하고 궁금증을 유발하는 내용이 많아 찾아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 자신을 성찰하게 되었고 관심과 표현이 사람을 얼마나 성장시키는지 깨달았습니다. 평소에 책을 싫어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책 『아몬드』였습니다.

자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나?

-손원평 「아몬드」, 다들링 2023.을 읽고 쓴 서평

한지호/3학년 4반

손원평 작가의 <아몬드> 작품은 인간의 감정과 관계의 본질을 탐구하는 독창적인 작품입니다. 주인공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소년, 윤재입니다. 윤재의 뇌는 아몬드 모양의 편도체가 없어서, 일반적인 인간들이 느끼는 기쁨이나 슬픔과 같은 감정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변의 환경으로 성장을 해 나가는 작품입니다.

주요 주제

이 소설은 감정의 결여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을 알려줍니다.

감정이 없다는 것은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인간관계와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작가는 감정이 없는 삶 속에서 윤재가 느끼는 외로움과 고통을 통해,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감정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주요 이야기

윤재는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해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이야기 도중 나오는 인물인 곤이가 나비의 날개를 때 놓을 때도 윤재가 편도체가 없기에 불편해 보인다가거나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어머니가 일어났을 땐 여러 가지 일을 통해 성장한 윤재는 눈물을 보였습니다.

결론

윤재가 감정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인간관계를 맺어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어 윤재의 이야기는 독자에게 감정의 중요성과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깊이 있게 전달합니다.

아몬드는 사람들과 주변 환경을 통해 성장해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속 윤재는 처음 사건이 일어나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몸이 아파도 감정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건을 통해 성장해나간 결과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몬드 책을 읽은 이유는 책의 이야기가 좋아 보여 읽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사람들과 또는 가족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는 소설입니다.

나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란

-손원평 「아몬드」, 다즐링 2023.을 읽고 쓴 서평

서병규/ 신형중 3학년 4반

우리는 감정이라는 게 있다. 학생이든 어른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어떤 생명체든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 책 또한 감정과 관련된 이야기다. 편도체가 작아 감정을 잘 못 느끼는 윤재와 실종되었던 사이 뺨뚫어져 버린 곤이 각각 다른 의미로 정상이 아닌 이 둘은 괴물로 치부되지만, 이 두 괴물이 만나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관계를 다룬 책이다.

내용 요약

이 이야기의 주인공 윤재는 편도체가 작아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해 엄마와 할머니에게 감정들을 배우며 살아간다. 하지만 윤재의 생일인 크리스마스 이브날 한 사건 때문에 할머니는 사망, 엄마는 식물인간이 되지만 윤재는 그때도 아무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이후 엄마의 친구인 심 박사가 윤재가 살 수 있게 도와주며 이후 곤이라는 아이와 친해지며 도라라는 아이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 하지만 이후 철사에게 죽을뻔한 곤이 대신 윤재가 칼을 맞고 쓰러진다. 이후 윤재는 깨어나고 식물인간이었던 엄마도 깨어나며 윤재는 감정을 되찾아간다.

개인적인 감상평

아몬드는 개인적으로 후반보단 초반을 재미있게 읽은 책이었다. 초반 윤재의 특성과 부모님의 노력 그리고 사람이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던 윤재와 이후 곤이와의 만남과 갈등 등, 여러 가지로 재미있던 부분들이 있었다. 또한 곤이와 초반엔 싸우면서도 나중에선 안될 존재가 돼버리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재미있었다.

추천여부

이 책은 감정과 인간관계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모든 독자에게 추천합니다.

감정이 결여된 주인공의 독특한 시각을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읽을거리를 넘어서, 삶의 여러 측면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결론

이 책은 단순한 성장 이야기를 넘어, 각자의 감정이 어떻게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책은 모든 독자에게 관계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감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줍니다. 독자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 작품은 모든 독자에게 강력히 추천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에 대한 중요성

-손원평 「아몬드」, 다즐링 2023.을 읽고 쓴 서평

정희창/신흥중 3학년 4반

아몬드를 보면서 감정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인공 윤재는 감정이 결핍되어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 윤재의 엄마와 할머니의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윤재의 엄마는 여러 감정 훈련을 해주지만 윤재는 간단한 가짜감정 표현만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감정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윤재 앞에서 엄마와 할머니가 봉변을 당할 때 윤재가 아무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에서 감정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나중에 윤재의 엄마가 일어났을 때 윤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감정은 중요하다는 걸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책 아몬드 껍질 속 숨겨진 이야기

-손원평 「아몬드」, 다즐링 2023.을 읽고 쓴 서평

천정빈 / 신흥중학교 3학년 4반

먼저 책 아몬드를 읽게 된 계기는 목차와 글귀 때문입니다. 목차는 프롤로그 > 1부 < 2부 이런 식으로 짜여 있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몰라 흥미를 유발하는 목차여서 선택을 했습니다. 글귀에는 조금이나마 이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힘을 낼 수 있는 거 같아 보였습니다. 또한 어떤 이야기들이 전개될까? 하는 흥미를 유발했습니다.

아몬드를 맛있게 즐기는 방법

주인공의 캘리포니아산 아몬드를 먹는 방법을 설명하는 장면이다. 아몬드 봉지를 집어 들고 그 안에 든 아몬드의 촉감을 느껴본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어 아몬드 냄새를 맡고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아몬드를 한 움큼 씹어먹는다. 주인공의 아몬드를 먹는 방법을 솔직하게 표현을 한게 인상 깊었다.

사랑으로 감싸는 가족의 품

주인공 윤재는 감정표현이 잘되지 않는 감정표현 불능증을 앓고 있지만, 가족과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감정표현 불능증을 점점 극복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부모님과 가족들에 따뜻한 마음들을 느낄 수 있었고 주인공 윤재의 포기하지 않는 모습들이 멋지고 대단해서 인상 깊었다.

PTSD

어린아이가 여러 중학생에게 맞는 장면이다. 중학생들이 자기들보다 어려 보이는 열 한 살에서 열두 살 정도 되는 어린 남자아이를 폭행하는 내용이 마치 오늘날의 학교폭력이라 같다고 생각했다. 그때 당시에 여러 폭력들이 심각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 같았다.

나의 일도 결국 남의 일

아저씨는 텔레비전을 보며 킬킬대느라 정신이 팔려 아들에게 일어나는 상황들을 모르는 내용이다. 표현이 잘되지 않는 아이가 아저씨에게 위험한 상황들을 최대한 설명을 하는데 아저씨는 정신이 팔려서 남의 일처럼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리고 잠시 뒤에 위험한 상황에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일이 되자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왜 진지하게 말하지 않았느냐고 소리쳤다.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 되돌아보지도 않고 아이에게 표현을 더 하지 않았느냐고 소리를 치는 아저씨의 행동이 이기적인 거 같았다. 남의 이야기도 결국에는 나의 일이 될 수도 있을 거 같다는 생각들이 들었다.

학교폭력

드라마에서 일어나는 폭력 내용이다. 드라마 소년 시대에서 같은 학교 같은 나이이지만 단지 힘이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학교 친구를 폭행하는 학교폭력을 다루는 걸 텔레비전에서 보았다. 요즘에도 학교폭력이 끊임없이 일어나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위에 드라마에 내용 속 장면에서 책 아몬드와 내용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학교 폭력 가해자

영화와 드라마에서 활동하는 유명 배우가 한 기사에 나와 있었다. 기사에 내용 속에는 유명 배우를 폭로하는 피해자의 글들이 적혀 있었다. 폭로 내용에는 여러 이야기와 여러 증거가 합쳐져 유명 배우가 학창 시절에 학교폭력을 했다는 내용이다. 이 유명 배우가 학창 시절에 책 아몬드에서 봤던 내용처럼 무서운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정말로 충격적이었다.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

12살에 어린 남자아이가 중학생들에게 폭행당한 장면이다. 중학생이 본인들보다 어린 한 남자아이 위로 중학생 여러 명이 둘러싸 폭행해 살인까지 이어지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거 같았다. 부모들의 관심이 기울어져야 하고 학교에서도 학교폭력에 관해서 교육을 해야 한다고 표현을 하는 듯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날의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사회를 비판하려고 하는 거 같았다.

책 아몬드를 읽고 감정들을 떠올려본 경험들

손원평 작가의 책 아몬드를 읽어보면서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는 주인공을 통해 내 감정이나 다른 사람들의 감정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과의 감정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친구는 자연스럽게 생긴다.

-손원평 「아몬드」, 다들링 2023.을 읽고 쓴 서평

-최태원/신흥중 3학년 4반

먼저 아몬드에서 인상 깊게 본 내용은 윤재와 곤이의 우정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처음에는 윤재가 곤이 역할을 대신해 곤이가 윤재를 괴롭힌다고 하지만 크게 한번 싸운 뒤로 곤이가 윤재가하고 있는 책방으로 책을 보러오고 대화도 나누고 그러다 조금씩 자연스럽게 친해진다. 나를 괴롭히던 사람도 즐거운 대화를 나누어보면 친해진다는 게 자연스럽게 신기해서 인상 깊었다

책 내용과 관련된 자기 경험

아몬드의 내용은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는 윤재가 심 박사 곤이 이도라 등 여러 좋은 사람을 만나 자기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성장하는 내용이다. 내용과 비슷한 나의 경험은 부모님이나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성장한 경험이다. 부모님은 나에게 대한 조언들로 나를 성장시켰고 선생님은 나를 잘 교육을 해주었고 친구들은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었다. 이런 경험들로 인하여 나를 성장 시켜서 아몬드의 내용과 비슷한 것 같다. 그리고 친구들끼리 서로서로 위로해준다면은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생기는 것 아닐까?

책과 연관된 자기 생각

이 책을 읽고 생각난 것은 사람들의 행동이다. 왜냐하면 윤재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성장할 수 있었지만 만약에 윤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을 만났다면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지 못하고 감정을 잘못 느끼기 때문에 친구를 만들 수 없었을 것 같다가 참에 행동에 따라 자기 자신이 변하는 게 현실과 비슷해서 생각난 것 같다. 그리고 또 생각난 게 친구가 생긴다면 나를 성장시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주인공도 친구 덕분에 자기 마음을 조금이라도 성장시키고 여러 가지 좋은 조언 들로 성장하는 게 현실에서도 친구들로 인하여 성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친구는 자연스럽게 생긴다. 그리고 그렇게 생긴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는 게 중요하다 소중히 여기려면 어떤 친구가 되어주어야 할까? 생각해 보자면 그냥 같이 재밌게 놀고 웃으면서 친구가 슬플 때 위로도 해주는 게 친구를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어떤 친구일까 생각했다 생각해 보니 나는 좋은 친구인 것 같다. 왜냐하면 친구가 슬퍼할 때 위로해주었고 재밌게 친구들과 놀고 친구를 소중히 여기는 방법과 같아서 나는 좋은 친구인 것 같다 친구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소중한 존재이다.

주인공의 사건들

-손원평 「아몬드」, 다들링 2023.을 읽고 쓴 서평

신지훈 / 신홍중 3학년 4반

손원평의 아몬드의 핵심 내용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주인공 윤재가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해 가는 과정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 작품은 감정과 공감의 중요성을 탐구하면서, 성장과 치유, 인간관계의 복잡함을 다룹니다.

비극적인 사건

윤재와 어머니는 무차별 폭행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어머니는 중상을 입어 혼수상태에 빠집니다. 윤재는 그 사건으로부터 큰 충격을 받게 되고, 그 이후 스스로 더 이상 감정적으로 무관심할 수 없게 됩니다.

곤과의 만남

윤재는 학교에서 곤이라는 문제아를 만나게 됩니다. 곤은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또한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인물입니다. 둘은 처음엔 대립하지만, 점차 서로를 이해하며 특별한 우정을 쌓아갑니다. 곤을 통해 윤재는 감정의 중요성과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법을 배웁니다.

감정과 공감의 중요성

윤재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점차 감정과 공감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이를 통해 작가는 인간의 감정이 우리를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감정의 결핍이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성장과 치유

윤재는 고통스러운 사건을 겪고, 곤과 같은 상처 입은 인물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고 감정적 치유를 경험합니다. 이 일로 윤재는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정 없는 소년의 성장 이야기 아몬드

-손원평 「아몬드」, 다들링 2023.을 읽고 쓴 서평

이우주 / 신흥중 3학년 4반

제가 읽은 책은 손원평 작가의 소설인 '아몬드'라는 책이다. 손원평 작가의 소설 아몬드는 감정표현이 어려운 소년 윤재의 시선을 통해 감정과 소통, 그리고 관계의 의미를 탐구하는 감동적인 성장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다. 윤재는 편도체의 이상으로 감정 반응이 결여된 채 살아 가지만, 소설은 윤재의 일상 속 사건들을 통해 진정한 감정의 본질을 탐색한다.

감정 결핍의 충격적인 현실

윤재의 감정 결핍은 독자에게 생경하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소설 초반, 윤재는 분노나 두려움과 같은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하며, 세상을 마치 감정적 색채가 없는 무채색 공간처럼 바라본다. 이러한 설정은 윤재가 타인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며, 그의 내면세계가 단순히 결핍에 그치지 않고 독특한 형태의 성장을 이루어내리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이 장면에서 나는 '내가 장애가 있다면 지금처럼 주변 사람들과 이런 관계를 가질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한다.'

엄마의 사랑

윤재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의 엄마는 아들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그를 이해하려 한다. 엄마는 윤재가 '정상'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다며 늘 따뜻하게 감싸준다. 이 관계는 윤재가 세상과 이어지는 유일한 연결 고리처럼 보이기도 하며, 감정 없는 윤재조차도 엄마의 조건 없는 사랑 앞에서는 변화를 겪기 시작한다. 특히, 윤재가 엄마의 사랑을 깨닫고 비로소 자신도 그 사랑을 되돌려주고자 결심하는 순간은 작품의 감동적인 전환점 중 하나다. 지금 생각하면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 당연하다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 부모님께 죄송하고 현대인들을 위해 부모님께 다시 한번 요즘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인 것 같다.

연결의 시작

윤재가 학교에서 곰사냥이라는 별명을 가진 학생인 윤이수와 친구가 되는 과정은 그가 타인과 관계를 맺고, 감정을 이해하는 첫 번째 계기다. 이수는 윤재에게 곤이라고 불렀는데, 곤이는 처음에는 윤재를 괴롭히지만, 결국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며 진정한 친구가 된다. 윤재와 따돌림의 우정은 윤재가 세상과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감정 없이도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드러낸다. 이는 곧 윤재가 더 넓은 세계로 나가는 발판이 된다.

감정의 의미를 가르쳐준 손 선생님과의 만남

윤재의 성장에는 손 선생님과 만남도 큰 역할을 한다. 손 선생님은 윤재에게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감정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법이 중요하다고 가르친다. 이 교육을 통해 윤재는 감정을 가진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할지 배워나가며,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익힌다. 윤재의 내면적 성장은 단순히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수용하는 능력을 키워가는 과정임을 이 장면이 잘 보여준다. 주변에 이런 사람이 한 명씩은 꼭 있지 않을까 생각도 스쳐 지나간다.

마지막 소제목 결론

아몬드라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소년의 이야기라는 독특한 설정을 통해, 감정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인간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시 묻는다. 윤재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감정을 이해하고, 타인과 소통하며 성장해간다. 이 책은 감정 그 자체보다는 타인과의 연결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려는 것 같다. 이 책을 읽으며 감정과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제12회 문학동네청소년문학상
대상 수상작

흔
흔
—
흔
흔

문 경 인 장 권 소 설



제12회
문학동네
청소년문학상
대상

**“과거를 싹둑 끊어 내면,
나의 내일은 가뻗할 텐데.”**

냉정하지만 따뜻하고, 현실적이지만 낭만적이다.
이 청춘모순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소설의 마지막 장에서 알게 될 것이다. _김사평

아동학대에 대하여

-문경민, 『흫흫』, 문학동네, 2022년 읽고

우민재 / 3학년 2반

주인공 유리라는 인물은 처음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 평범한 삶을 살아온 아이는 아니었다. 우리는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삶에 의지가 없는 아이인 것 같았다. 그는 우리와 달리 끔찍한 아동학대를 당해왔다. 나는 아동학대를 당해 본 적은 없지만, 우리는 당해왔기 때문에 무서웠을 거 같고 심적으로 아주 슬펐을 거 같다. 그리고 유리는 엄마께서 유리를 버리는 일도 있었다. 그것을 보고 나는 참 힘들었을 거 같다. 라고 느꼈다. 그 후 유리는 입양한 서정희 씨랑 할아버지랑 애정을 주며 일단은 평범히 살아갔다.

유리는 할아버지와 애정을 주며 잘 살아갔고, 그 이후 안 좋은 일들이 벌어졌다. 엄마인 서정희가 안타깝게 사고로 죽었다. 나여도 유리여도 그 일은 아마 슬프고 오래 기억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사고로 끝난 뒤 서정희 아들인 연우가 등장했다. 그러면서 연우랑 같이 살게 되었다.

아마 유리는 처음 본 연우라는 아이이기 때문에 많이 어색했을 거 같다. 역시 처음에는 연우와 유리는 어색했고 유리와 연우는 그 후 점점 좋아졌다. 어색했던 유리가 힘들 때 말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좋았을 거 같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유리와 할아버지 사이에 연우가 들어온 뒤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나는 신기했다. 연우라는 아이 한 명으로 인해서 유리가 웃을 수가 있었고 기댈 수 있는 친구가 생겼고 할아버지와 사이가 좋아진 것까지 연우가 등장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 거 같다. 연우가 없었다면 유리는 아마 안 좋은 일들과 안 좋은 생각을 했을 거 같다.

내가 전하는 한 마디

나는 이 책 흫흫을 보고 느꼈던 것은 우리는 모두 웬만하면 유리 같은 일들은 잘 없다 유리는 아동학대를 당해왔고 2번 모두 버려지는 슬픈 일들은 당해온 유리이다. 과연 이 일들이 우리가 아니라 만약에 나였다면 상상도 못 하게 괴로웠을 거 같고 나는 온종일 울었을 거 같다 아동학대는 심각한 거다. 연우처럼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버티면서 안 좋은 생각은 버리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거 같다.

유리처럼 사람들에게 버려진다면 배신감이 엄청 들었을 거 같고, 그 동시에 엄청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을 거 같다. 흫흫 연우처럼 나도 힘든 사람, 힘든 친구가 있다면 기대어 주고 응원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될 거다

글쓴이의 의도

흫흫 책 글쓴이 의도를 찾아보면 유리가 당했던 아동학대를 조금 표현하려고 한 것 같고, 버

려진 후 할아버지와 연우를 만나서 유리가 찢어진 마음을 다시 나아지게 만드는 걸 담으려고 한 거 같다. 그리고 중요한 엄마를 만나 그리고 엄마가 준 편지를 읽고 그동안 유리에겐 했던 일들을 사과하는 내용을 글쓰기가 제일 중요하게 표현하려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글쓰기는 유리가 점점 사람들과 친해지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용서하고 좋고 슬프지만, 마지막에는 나아지는 이야기로 끝나는 구도로 끝나는 거로 의도인 글쓰기인 거 같다.

유리의 인연

이 이야기는 바로 아동학대에 관한 이야기이다. 아동학대는 실제에서도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당장 뉴스, 뉴스 기사, 유튜브 등등 보면 이 이야기보다 더 많이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유리처럼 실제로 많아지듯이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고 유리 엄마처럼 가해자들도 많이 있다. 이 훌훌 책 내용은 아마도 이렇게 많이 실제로 일어나는 아동학대 심각성이 얼마나인지 그리고 그 아동학대를 당하는 유리처럼 그 아이들에 기분 상처가 얼마나 아픈 지 잘 나타낸 책이 아닌가 싶다. 이 책을 국어 시간에 읽으면서 유리의 상처를 잘 알게 됐고 그 이후 사과를 하는 엄마의 모습까지 잘 알게 된 거 같다. 이 내용을 잘 담고 잘 나타낸 이 책 훌훌 인 거 같다.

훌훌을 읽고

강동현 / 3학년 3반

저는 훌훌을 읽고 인상 깊었던 장면을 써보겠습니다. 반복되고 너절하고 복잡한 기분이 싫었다. 내 과거를 끊어내고 싶었다, 없던 시절로 치워버리고 싶었고 뒤도 돌아보고 싶지 않았다는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유는 야구를 시작하고 학교에 갔다가 바로 훈련하고 와서 씻으면 자야 하고 또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를 반복이라 너무 지옥 같았고 하기 싫었고 그만두고 싶었던 그런 느낌이 나서 인상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상 깊었던 것은 이 책의 학교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가 제가 다니던 학교와 너무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책에서 학교 운동장의 생김새를 알려주는데 물건의 위치도 똑같고 형광 유니폼도 똑같고 심지어 제 친구 이름인 연우라는 애도 있어서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인상 깊었던 마지막은 당신들이 포기했던 내가 이만큼 제대로 커버렸나 가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일단 말 자체가 되게 낭만 있고 신흥 코치님께서 넌 프로 절대 못 가고 백으로 한다고 하고 포기하라고 하는데 제가 프로 가서 이 말을 꼭 그 코치님 앞에 가서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려는 동기 부여도 돼서 제일 인상 깊었다고 생각합니다.